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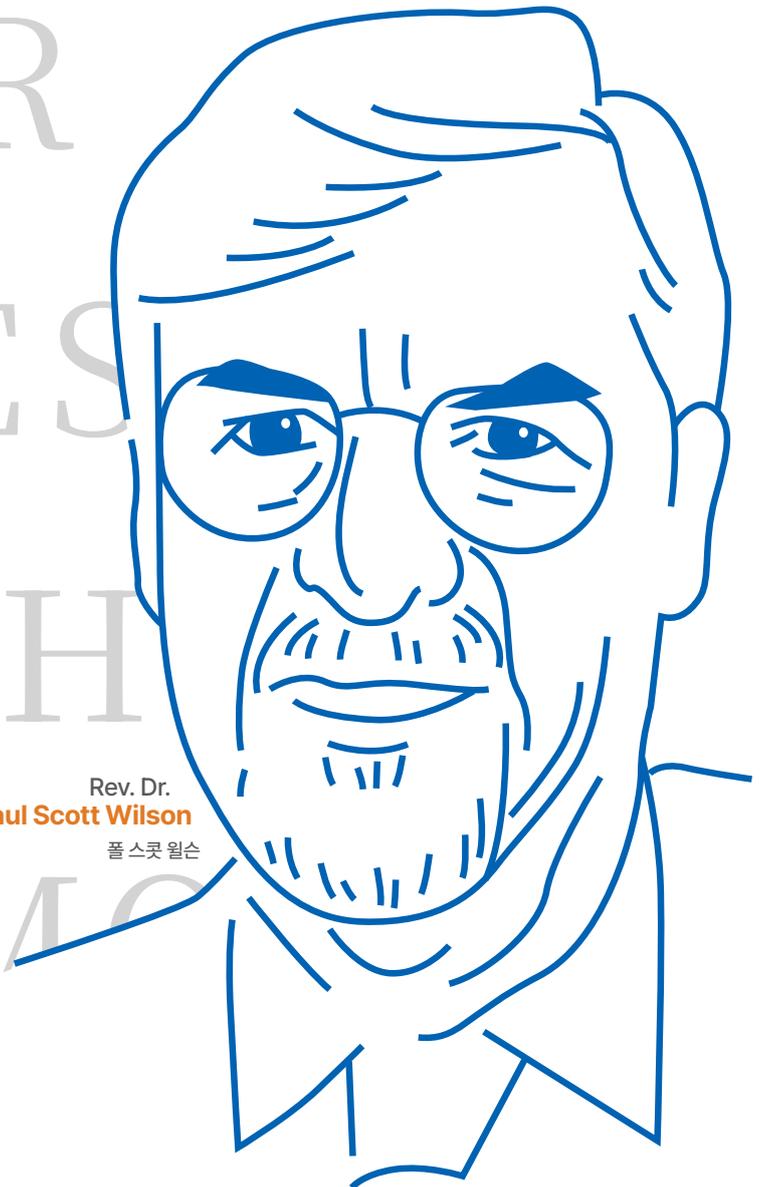
모두를 위한 예배와 설교 vol.5

햇불트리니티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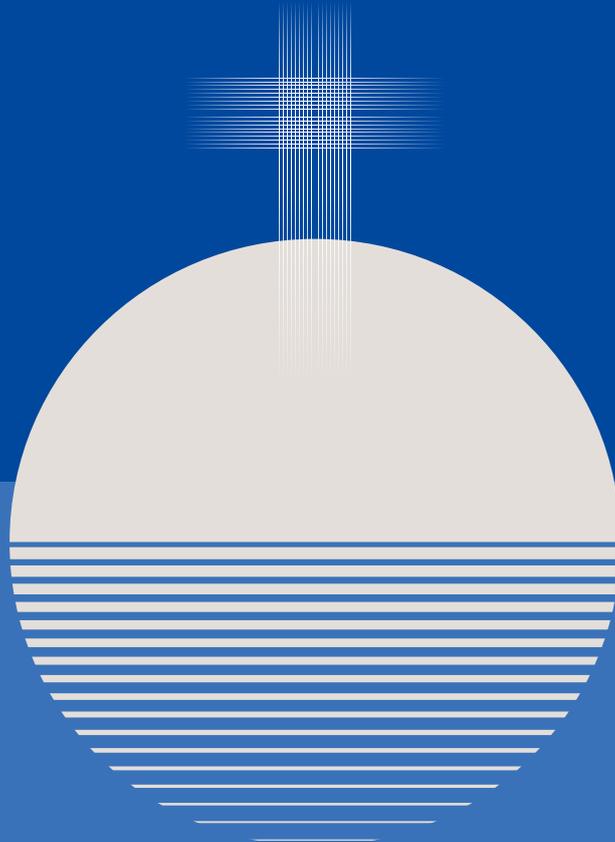
Rev. Dr.
Paul Scott Wilson
폴 스콧 윌슨



안덕원 편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PRATER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모두를 위한 예배와 설교』는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예배설교분과)에서 발간하는 단행본 매거진입니다.

영혼의 항해사시여,
당신의 첫 번째 숙소는 마구간이었고
당신의 첫 번째 여행은 죽음을 피한 망명이었으며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실 때도
머리 돌 곳을 쉽게 찾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에게
확실한 인도자시요, 변함없는 쉼터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신비로운 당신의 성품을 입히소서.

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연민의 언어를 그들에게 주시고,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한 명의 인간이자 사랑을 나누는
한 몸의 가족으로 환대받게 하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블린 언더힐,
『영성가의 기도』, 박천규 옮김(비아, 2018), 167-168.

Contents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3p

이블린 언더힐

발간사 6p

안덕원

특집 - “이렇게 설교 하라! - 설교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다섯 개의 시선” 8p

- 1) 유진 로우리, 『생명력이 있는 설교』-하목연
- 2) 찰스 캠벨, 『프리칭 예수』-방부강
- 3) 김영봉, 『설교자의 일주일』-최수경
- 4) 팀 켈러, 『팀 켈러의 설교』-권예찬
- 5) 아브라함 쿠루빌라, 『본문의 특권!(설교를 위한 신학적 해석학)』-장유나

특강 후기 - 폴 스콧 윌슨 박사 (Dr. Paul Scott Wilson)의 “설교와 예술” 19p

최빛나(Sophia Choi)

“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 후기” 22p

백승자

“11년짜리 1학기” 24p

김한나

“설교자의 독서와 글쓰기” 26p

안덕원

“설교자의 서재 2025” 30p

차두진

“설교자의 서재 후기” 33p

배현정

“아크크루(Ark Crew) 방문기” 37p

김종수

안내

발간사

좋은 하나님 사랑과 은총이
이 매거진을 펼치는 모든 분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로 헤아릴 수밖에 없는 복된 순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 4월, 세계적인 설교학자 폴 스콧 윌슨(Paul Scott Wilson) 교수님의 특강은 우리 공동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학문적 깊이와 통찰은 물론, 한 설교자로 살아온 그의 삶과 소명에 대한 고백은 설교를 '기술'이 아닌 '삶'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남겼고, 동시에 다시 설교의 자리로 돌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통역을 위해 특별히 수고한 최빛나 님의 기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된 실천신학 성경적 설교 석사과정(Th.M)을 통해 귀한 만남과 배움의 시간이 이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그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이 각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고했습니다. 설교이론에 대한 소개 및 서평의 성격을 지닌 이 글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길잡이이자 더 깊은 대화로의 초대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설교자의 서재] 여덟 번째 시즌을 통해 다양한 문학 작품 만날 수 있었던 시간 역시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 주교재로 함께 읽은 『소설 읽는 신자에게 생기는 일』은 문학 작품과 저자를 바라보는 작가의 탁월한 시선을 통해 신학과 신앙과 상상력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종교교회와 함께 진행한 [다음 시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세미나]에서의 나눔 또한 현장의 고민과 신학적 성찰이 만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교회 만들기] 동아리의 아크크루(Ark Crew) 탐방을 통해 교회를 '만드는 일'에 대한 실제적인 배움과 질문을 나눌 수 있었음도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 매거진의 출판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차두진, 정희애, 서애지, 권예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호에는 설교와 관련된 글들이 많습니다. 귀한 원고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기꺼이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배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매거진이 비록 작고 미약할지라도, 읽는 이들의 사유를 흔들고, 설교와 목회의 자리에서 작은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덕원

실천신학교수 | 햇볼트리니티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장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특집 - "이렇게 설교 하라!"

- 설교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다섯 개의 시선

유진 로우리의

『생명력 있는 설교 :

설교의 심장을 뛰게 하라』

하목연 (ThM, 실천신학 성경적 설교 2025)

유진 로우리(Eugene L. Lowry)는 20세기 후반 북미 설교학의 흐름을 바꾼 대표적 설교학자로, 오랫동안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의 세인트폴 신학교(St. Paul School of Theology)에서 설교학 교수로 재직했다. 로우리는 내러티브 플롯(narrative plot)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설교"(narrative preaching)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설교학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로우리의 첫 번째 책인 『이야기식 설교 구성』(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1980;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이 설교 학계와 교회에 주었던 영향력이 실로 컸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설교: 설교의 심장을 뛰게 하라』(The Homiletical Beat: Why All Sermons Are Narrative, 2012;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에서 그는 내러티브 설교의 절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다루고 있다.

1. 『생명력 있는 설교』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설교는 시간이다.

로우리는 설교를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정의한다. 설교를 음악, 영화, 드라마와 같이 예배라는 현장 안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한다. 로우리에게 내러티브는 사건들이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연결되어 구성된 이야기이다. 내러티브를 시간의 흐름으로 정의한다. 내러티브 설교를 단순한 이야기의 나열로 보지 않는다. 설교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로우리에게 설교는 사건의 순서에 따라 플롯의 형태를 취하는 "개념들의 배열"이다. 이제 그가 사용한 내러티브 전략들을 알아보자.

둘째, 설교는 긴장-해결 구조를 가진다.

로우리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재즈 음악이 지닌 긴장과 해결 구조를 자신의 설교에 적용시켰다. 로우리가 설교를 '플롯'이라고 처음 이름을 짓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로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플롯 개념을 파악하는 데 재즈의 음악적인 요소를 활용했다. 로우리는 성경적-신학적 깊이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재즈 음악이 가지고 있는 긴장과 해결 구조를 성경 본문에서 찾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셋째, 설교에는 필요한 언어가 있다.

내러티브 설교의 언어 유형을 보면 "보여주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미학적 언어는 게슈탈트(Gestalt: 형태)적인 인지적 깨달음을 보여준다. 로우리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 예를 들면서,

주인공 데이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찼다"와 같이 구체화된 언어를 사용한 예를 든다. 이렇듯 보여주는 언어의 사용으로 설교는 마치 아침 햇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는 성가대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구체화된다. 프레드릭 뷰크너(Fredrick Buechner)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단어들은 단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이고, 동시에 이미지 상징이며, 소리나 리듬이며, 무엇보다도 어쩌면 열정이다."¹

넷째, 로우리 설교의 '플롯'은 세 단계에 걸쳐서 발전했다.

그의 플롯 형태는 초기에는 1980년에 출간된 『이야기식 설교 구성』의 5단계의 플롯에서 그다음에는 4단계,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진 에피소드식 설교란 이름으로 발전했다. 여기서는 4단계 플롯을 소개한다. 4단계 플롯은 갈등-복잡화-반전-대단원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로우리가 플롯의 4단계 대단원에서 드러나는 '절반의 재현'(reprise) 부분이다. 절반의 재현이란, 복음을 명료하게 제시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순간으로 돌아가 일부분을 다시 재언급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듣는 설교의 결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책임, 의무와 같은 적용점에 결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로우리의 '절반의 재현'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것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복음과 복된 소식들을 회상하면서, '그러므로' 즉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간다. 조금 더 명확히 말하자면 설교의 최종적인 핵심은 인간의 복종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것이다.

2. 『생명력 있는 설교』가 설교자에게 제공하는 유익

이 책은 연역적 설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설교자에게 좋은 실례를 제공한다.

첫째, 갈등과 긴장을 조성한다.

로우리는 청중이 “모호함”을 느끼게 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나 딜레마 또는 난처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다. 즉 설교 서두에서부터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로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눅 24:13-35)의 설교, “희미한 감지”에서 이러한 “모호함”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둘째, 긴장에서 해결로 나아가는 전략을 사용한다.

설교자가 어떤 설교 스타일이건 간에 긴장에서 해결로 나아가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설교에서 결단을 요구하며 쓰이는 표현, 곧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만 하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셋째, 보여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한다.

로우리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Barbara Brown Taylor)의 설교를 예로 든다. 테일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여인과 길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예수)가 자신의 얼굴을 들어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 여인은 올리브 빛의 피부와 어두운 눈동자, 그리고 오뚝한 코를 보았다. 그는 혼혈이 아니었다.”²

넷째,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략적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 다음, 여인의 남편에 대한 대화를 한 후, 여인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가까이하기 시작했으며, “보다 안전하게” 종교적인 대화로 돌아가고 있다. 테일러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인이 뒷걸음쳤을 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뎠다. 여인이 조명에서 멀어질 때, 예수님은 조명 아래로 돌아왔다. 예수님은 여인이 물러서도록 놓아주지 않았다.”³

로우리는 이런 것을 가히 상상력이라고 말한다.

다섯째, 복음의 장면을 회상, 즉 ‘절반의 재현’을 적용한다.

아래는 유진 로우리의 설교 “희미한 감지”의 대단원 부분이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더”를 외치는 청중의 목소리에 답하는 밴드의 연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⁴을 감지해보자.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을 사로잡고, 말 그대로 180도 그들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본문은 즉시로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 해가 저물어 날이 깜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참고문헌

- 1 유진 로우리, 『생명력 있는 설교』, 김양일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81.
 - 2 유진 로우리, 『생명력 있는 설교』, 김양일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82-83
 - 3 유진 로우리, 『생명력 있는 설교』, 김양일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84.
 - 4 유진 로우리, 『생명력 있는 설교』, 김양일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162.
 - 5 로날드 알렌,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허정갑 역(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7), 162.
 - 6 찰스 캠벨, 『프리칭 예수』, 이승진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222.
- ▶ 유진 로우리 책 『생명력 있는 설교』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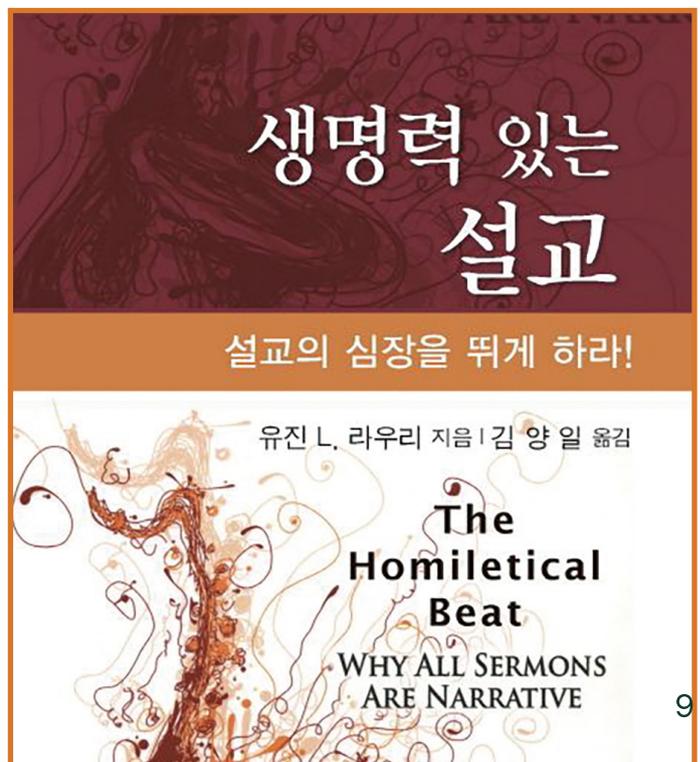
오,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낮에 엠마오로 걸어갔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시간에는 오히려 빛 가운데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희미한 감지’를 경험한다면 비록 그것이 순간적이거나 빠르고 부분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⁵

3. 유진 로우리의 『생명력 있는 설교』에서 발견되는 유의점

찰스 캠벨(Charles L. Campbell)은 “설교에 내포된 시간적인 특성과 설교문의 구조에 대한 그의 많은 통찰들은 최근의 설교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⁶고 로우리를 평가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의 플롯을 강조하는 로우리의 방식은 자칫 복음의 더 본질적인 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복음서의 내러티브를 존중하고,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회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일차적인 관심으로 삼는다면, 로우리의 플롯 방식의 설교 방법은 회중들이 설교를 듣게 하는데 탁월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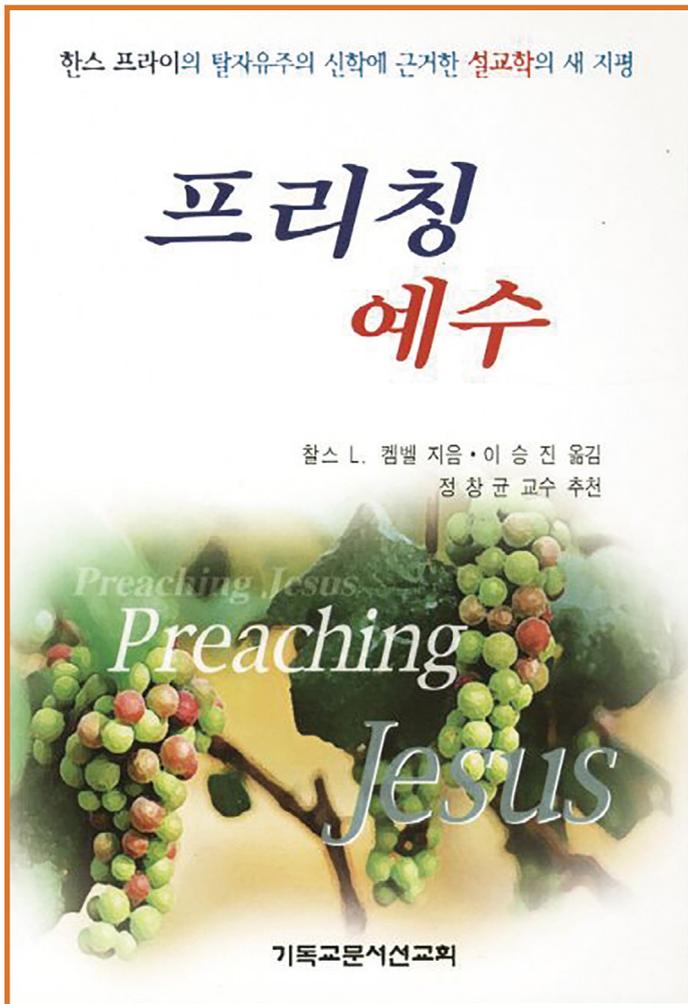
맺는말

로우리의 설교 방법이 삼대지 설교와 연역적 방식의 설교 및 교훈적인 설교에 익숙한 한국교회 설교자와 회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설교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달라진 소통 환경을 이해한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라면 많은 고민거리와 도전의 주제들을 던져 준 로우리의 설교 방법은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가장 큰 문제는 본문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익숙함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로우리가 제안한 방법 중 하나인, 성경 본문에서 가장 강렬한 긴장이 있는 순간을 찾아 그곳에서 오래 머무는 연습이야말로 성경의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 생명력 있는 설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특히 로우리가 언급한 성서정과의 본문 편집과 무시된 구절(야곱의 성서정과 시리즈에서 다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심각한 갈등을 담고 있는 성경 본문을 설교라는 시간 속에 담아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요구된다.



찰스 L. 캠벨의 설교 세계 : 『프리칭 예수』

방부강 (ThM. 실천신학 성경적 설교 2025)



▲ 찰스 L. 캠벨의 책 "프리칭 예수" 표지

1. 책과 저자에 대한 개괄적 소개

찰스 L. 캠벨은 듀크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쳐 온 학자로, 설교를 성경 해석과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그의 저서 『프리칭 예수』는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집필된 책으로, 비교적 학문적인 논의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과 일관된 논증을 통해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 캠벨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명확하다. “설교는 과연 누구를 선포하고 있는가?” 그는 설교의 중심이 도덕적 교훈이나 보편적 진리, 혹은 청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머물 때 복음의 고유성이 약화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캠벨은 설교의 초점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 놓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한스 프라이어의 후기 자유주의(탈자유주의) 신학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성경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정체성과 독특성이 설교를 통해 어떻게 증언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2. 책의 내용과 특징

이 책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스 프라이어의 신학 사상을 비교적 간결하게 정리한다. 신정통주의, 성경신학운동, 역사 비평 이후의 신학적 흐름 속에서 ‘믿음과 역사’의 문제가 프라이어에게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살피며,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에 대한 그의 비판과 탈자유주의적 대안을 소개한다. 특히 성경을 개인의 종교적 경험의 재료가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야기와 언어로 읽어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된다. 캠벨은 기독교 공동체를 성경을 함께 읽는 ‘해석 공동체’로 이해하며, 성경 본문의 문자적 의미가 공동체의 삶과 실천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2부에서는 현대 설교학, 특히 내러티브 설교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찰스 라이스, 프레드 크래독, 유진 로우리 등으로 대표되는 서사 설교학을 한스 프라이어의 탈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그 신학적 전제를 점검한다. 캠벨에 따르면 많은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청중의 체험이나 실존적 반응을 중심에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의 세계를 인간의 보편적 경험으로 환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정체성을 흐릴 위험을 내포한다. 이야기의 형식과 플롯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예수를 가려버리는 역설을 낳는다는 비판 역시 이 대목에서 제기된다.

3부에서 캠벨은 앞선 논의를 종합하며 설교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설교의 초점은 설교자의 전달 기술이나 청중의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드러내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는 교회 공동체를 교회답게 세우는 핵심적인 행위이며, 공동체가 성경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형성하는 중요한 실천임을 캠벨은 거듭 강조한다.

3. 이 책이 설교자(설교 작성)에 주는 도움

첫째, 설교에 있어 그리스도 중심성의 회복을 깊이 성찰하게 한다.

이 책은 설교자가 본문을 통해 청중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이 본문이 증언하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도록 이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설교자를 성경 본문, 특히 복음서 본문을 더욱 주의 깊고 세밀하게 읽게 만들며, 복음의 내러티브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정체성이 오늘의 삶과 어떻게 구체적인 생명력으로 연결되는지를 깊이 숙고하도록 돕는다.

둘째, 성경 본문을 억지로 현대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설교자를 자유롭게 한다. 캠펔에게서 복음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 평가되거나 정당화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세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관점은 설교를 위해 인위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본문을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을 경계하게 한다. 그 결과 설교의 내러티브는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본문이 스스로 말하도록 공간을 열어준다.

셋째, 설교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캠펔의 설교 이해는 개인의 경건이나 내면적 감동에 집중된 설교를 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의 이론에서 설교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에 익숙해지는 ‘습관’을 형성하는 장이다. 설교자는 성경의 서사적 문법을 따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소망할 이야기를 구축하며, 그 이야기 속에서 공동체의 삶을 형성해 간다.

4. 이 책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

첫째, 캠펔의 이론을 실제 설교로 구현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명료한 논지와 분명한 적용점을 중심으로 설교해 온 설교자에게는 캠펔이 제시하는 설교 방식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본문의 서사적 흐름을 설교 속에서 신실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신학적 이해뿐 아니라 상당한 훈련과 연습이 요구된다.

둘째, 성경 본문의 장르에 따라 적용의 한계가 존재한다.

캠펔의 모델은 복음서와 같은 서사적 본문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바울 서신이나 잠언과 같이 논증적이거나 교훈적인 본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설교자는 본문의 장르와 신학적 성격을 고려하여 캠펔의 접근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교의 메시지가 모호해질 위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명제적 진술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내러티브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설교의 핵심이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중은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붙들지 못한 채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내러티브 설교 역시 신학적 초점과 책임 있는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이 책의 관점에 따라 제시되는 설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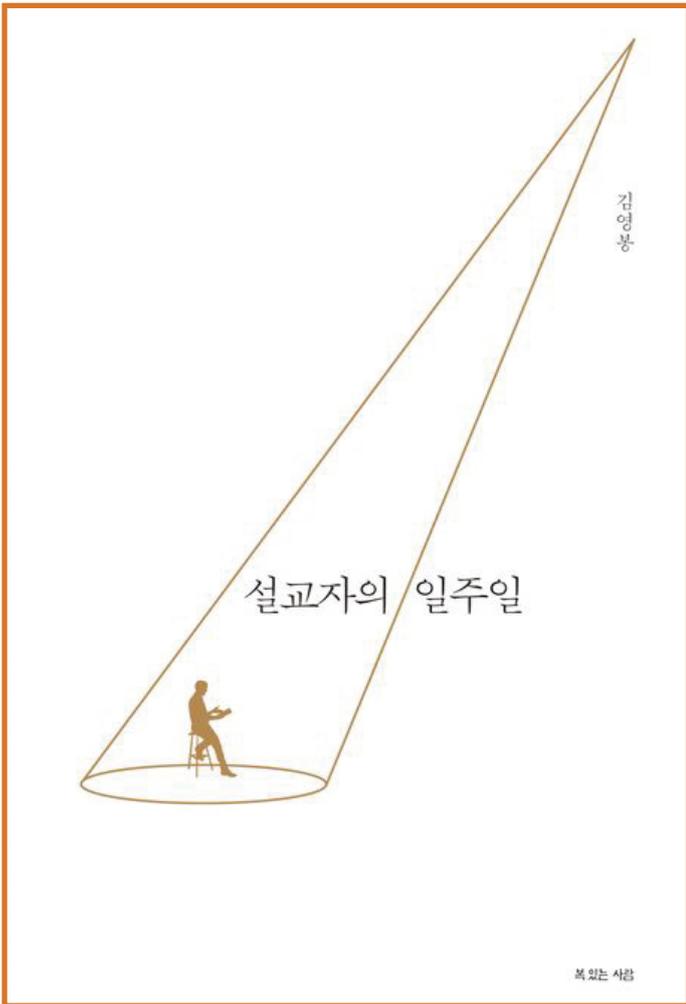
『프리칭 예수』에서 캠펔은 월터 브루그만의 설교를 그가 말하는 설교 이상에 부합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특히 책의 부록에는 마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한 브루그만의 설교, 『새로움으로 변해 버린 고통』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설교는 본문이 증언하는 예수의 행동과 그로 인해 재구성되는 세계를 중심에 두면서, 설교가 어떻게 공동체를 새로운 복음의 현실로 초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제적 예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찰스 L. 캠펔(Charles L. Campbell), 『프리칭 예수』, 양혜원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김영봉 목사의 『설교자의 일주일』을 읽고 - 설교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

최수경 (ThM, 실천신학 성경적 설교 2025)



▲ 김영봉 목사의 책 "설교자의 일주일" 표지

1. 책과 저자에 대한 개괄적 소개

김영봉 목사의 『설교자의 일주일』은 설교를 단순히 본문을 해석해 전달하는 일로 보지 않는다. 이 책이 바라보는 설교는 설교자의 하루와 한 주, 그리고 삶 전체와 직결된 영적 행위이다. 2016년 서울 영동교회에서 열린 설교 학교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된 이 책은 설교가 만들어지는 시간과 리듬을 설교자의 실제 일상 속에서 보여준다.

김영봉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과 설교학을 수학했으며, 오랜 목회 현장과 교육 사역을 통해 설교자 양성에 힘써 온 목회자이자 설교학자이다. 그는 설교를 단순한 전달 기술이나 화법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설교자의 인격과 영성, 일상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의 사건으로 이해한다.

특히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개념인 에토스(인격), 파토스(정서), 로고스(논리)를 설교 이해의 틀로 삼되, 이를 이론적 설명에 머물도록 두지 않는다. 오히려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보다 먼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2. 책의 내용과 특징

첫째, 이 책은 설교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한다.

설교는 강단 위에서 갑자기 완성되는 말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 만남과 침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형성되는 언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설교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축적된 언어이며 설교자의 일주일 자체가 설교 준비 과정이 된다.

둘째, 설교의 중심에 설교자의 에토스, 곧 인격과 영성을 둔다.

김영봉 목사는 설교의 설득력은 표현력이나 구성보다, 설교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설교 준비보다 설교자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셋째, 설교를 에토스-파토스-로고스의 통합적 과정으로 설명한다.

설교자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의 상처와 정서를 성찰하고 회중과 공감하며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중간자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교는 지식 전달이나 훈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회중이 만나는 사건이 된다.

결국 『설교자의 일주일』은 설교를 '잘 구성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축적된 언어'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 책의 미덕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데 있기보다 설교자가 이미 알고 있으나 쉽게 지나쳐 왔던 질문들, 곧 "나는 어떤 설교자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붙들게 한다는 데 있다.

3.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설교자에게 도움이 된다.

첫째, 설교 준비를 둘러싼 과도한 부담과 죄책감을 덜어 준다.

설교를 매번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만 요구하지 않고 삶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둘째, 설교자의 영성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기도와 묵상, 영성 생활과 시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설교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실제적인 가이드가 된다.

셋째, 설교를 ‘성공’이나 ‘성과’의 관점이 아니라, 성실과 진정성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해준다. 이는 설교자 지망생이나 초보 설교자의 설교 방향을 건강하게 정렬해 준다.

4.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유의해서 사용하면 좋다.

이 책이 제시하는 설교자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이상적인 기준 위에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할 매뉴얼로 읽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설교를 점검하게 하는 기준점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의 영성과 자기 성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다 설교자를 향한 방향 제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5. 이 책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좋은 사례들

김영봉 목사는 이 책에서 설교가 기법이나 화법의 결과가 아니라, 설교자의 삶의 태도와 일상적 선택 속에서 형성되는 언어임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그는 설교자가 말씀 앞에 회중과 함께 서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실제 설교에서도 “여러분”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는 말씀의 적용 대상에서 설교자인 자신을 제외하지 않는 태도가 설교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저자가 소개하는 주간 리듬은 이 책의 핵심 주장이 실제로 구현되는 방식이다. 월요일을 쉼의 날로 구별하고 이후의 요일들은 연구·묵상·사역·가정의 시간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설교가 하루의 집중 작업이 아닌, 한 주의 삶 속에서 축적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그는 설교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닌 ‘치유 받은 치유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설교자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치유의 과정을 통과할 때, 설교가 회중의 삶과 깊이 만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 책의 주장이 추상적인 이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설교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6. 결론

『설교자의 일주일』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 이전에,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책이다.

이 책 설교자의 사명을 ‘성공적인 전달’이 아니라 ‘진실한 존재’의 문제로 되돌려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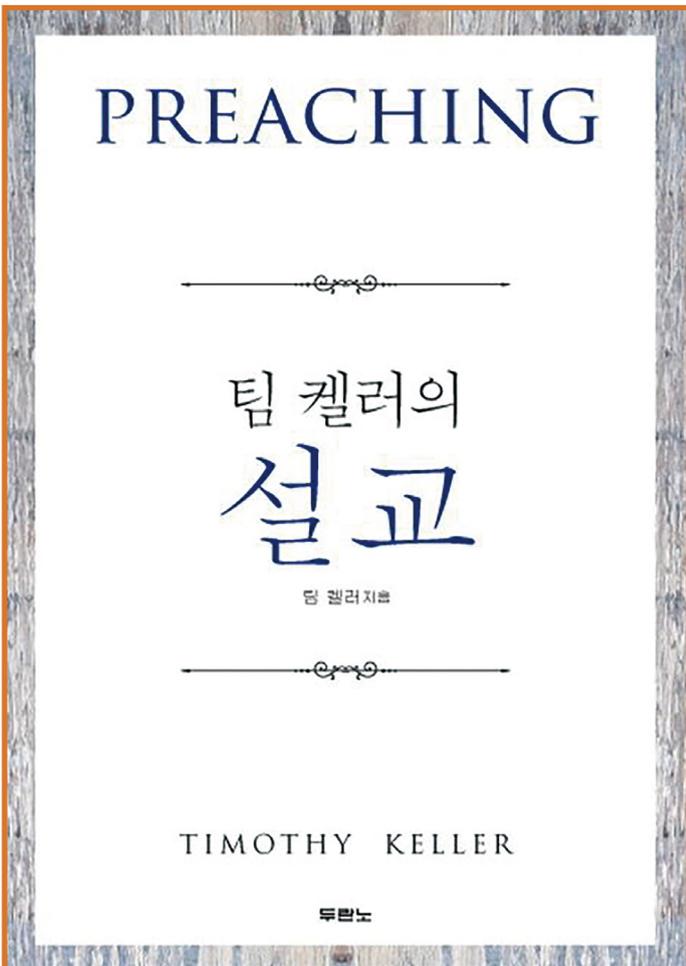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먼저 묻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의 일주일』은 설교 기술서가 아니라, 설교자를 위한 영적 거울과 같은 책이다. 설교를 배우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조용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기준이 되어 줄 것이다.

앞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원고의 완성도나 표현에 집중하기에 앞서, 내 삶이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의 무게가 설교자에게 허락된 영예임을 잊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다짐해 본다.

변증 설교

『팀 켈러의 설교』를 중심으로

권예찬 (ThM, 실천신학 성경적 설교 2025)



▲ 팀 켈러의 책 "팀 켈러의 설교" 표지

1. 책의 저자에 대한 소개

팀 켈러(Timothy Keller) 목사는 미국 장로교(PCA) 소속으로 안수를 받은 이후 버지니아 주 호프웰의 웨스트호프웰장로교회에서 첫 목회 사역을 시작했다(1978-1984). 그는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설교학을 5년간 가르쳤다(1984-1989). 이후, 1989년에 뉴욕 맨해튼에서 리더머장로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소천하기 전 2023년까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맨해튼의 리더머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주로 사용했던 설교 방법론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여 청중의 삶이라는 컨텍스트에 적용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변증 설교이다. 팀 켈러 목사는 자신의 그리스도 중심적 변증 설교의 방법론을 책으로 집필하며 저술하였는데, 바로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이다.

팀 켈러 목사가 리더머장로교회에서 선포한 변증 설교는 세속적인 도시 맨해튼에 영향력을 주었다. 개척 시기에 복미 주요 교단들은 침체 가운데 있었으며 맨해튼의 경우 기독교 인구가 0.5%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30년이 지난 시점에는 5%까지 증대했다. 2019년 기준으로 5천여 명의 다양한 인종이 리더머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전 세계 대도시 에 200여 개의 교회가 팀 켈러의 변증 설교 방식을 채택하며 개척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영향력으로 팀 켈러는 '무신론자들을 위한 사도'로 불리는 C.S. 루이스와 계보를 같이 하는 설교자로 평가를 받았다.

2. 책의 내용과 특징

『팀 켈러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첫째, 설교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다.

책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크게 텍스트, 컨텍스트 그리고 서브텍스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텍스트의 경우 성경 말씀과 복음(그리스도)을 가리킨다. 성경의 모든 주제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할 것을 주요 특징으로 담고 있다. 컨텍스트의 경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문화와 시대 정신, 그리고 마음으로 구체화된다. 팀 켈러가 사역하던 맨해튼은 탈기독교 현상이 진행되고 무신론자가 증대되고 있었다. 당시의 문화적 특징이다. 이와 같은 청중의 문화와 시대 정신에 어느 정도는 긍정하며 적응해야 하지만 복음과 부딪히는 부분은 맞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설교에 담기는 컨텍스트로 본다. 그리고 컨텍스트에서 청중의 마음이 의미하는 바는 설교를 듣는 자의 감정, 정신, 의지를 고려하여 설교가 저술되어야 함을 뜻한다. 서브텍스트는 설교의 텍스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설교를 전달할 때 설교자가 가지게 되는 태도다. 숨은 마음 혹은 설교자의 목표라고도 한다. 설교자의 어조, 표정, 자세, 제스처 등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설교자의 참된 서브텍스트가 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서브텍스트다. 설교자가 먼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느끼며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예배의 서브텍스트가 설교자의 설교 목표가 된다.

둘째, 팀 켈러의 설교 개요다.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표로 정리해 보겠다.

흐름	내용	구분
도입	문제가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컨텍스트(시대 정신)
초기 질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 독자들이 처한 문화적 상황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텍스트(성경 말씀)
중기 질문	우리를 막아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내면의 문제 - “왜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컨텍스트(적응과 맞서기)
후기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 주제를 완성하고 이 핵심 문제 (우리의 내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텍스트(그리스도 중심 해석)
적용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텍스트, 컨텍스트, 서브텍스트 (그리스도 중심 적용, 시대 정신을 넘어서기, 성령의 임재 강조)

3. 설교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팀 켈러의 설교 방법론을 『팀 켈러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때 목회 현장에 있는 설교자들에게 다음 세 가지의 지침을 안내해줄 것이다.

첫째, 『팀 켈러의 설교』는 말씀 중심의 강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알려준다.

말씀을 보고 말씀에 언급된 것을 전달하는 것은 말씀을 미시적 맥락으로 보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강조하는 것은 거시적 내러티브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설교자들은 팀 켈러의 방법론으로 이 관점을 알게 된다.

둘째, 『팀 켈러의 설교』는 설교자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말씀이 청중들에게 들리기 위해서는 청중들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 청중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청중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청중들의 마음과 문화 그리고 시대 정신을 긍정하며, 혹은 맞서며 설교를 전달할 것을 제시하는 것은 삶을 공감하는 방법론 중 하나다.

셋째, 『팀 켈러의 설교』는 설교자로서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태도,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태도를 분명하게 강조해준다.

설교자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자다. 청중들을 말씀으로 안내하지 않고 자기 과시에 집중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강단에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의할 점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팀 켈러 목사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팀 켈러 목사의 설교 방법론 또한 충분히 영향력 있고 많은 설교자들이 공부해야 하는 설교 방법론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나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다.

물론,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성경의 신학을 연구해보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된다. 다만, 설교의 시간은 한정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설교가 아닌 강의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에 치우치다 보면 본문 텍스트의 교훈을 놓칠 수 있다.

둘째, 설교의 방법론을 변증적 설교로 일반화하는 것이다.

팀 켈러가 목회를 했던 맨해튼은 고학력자와 무신론자가 많은 도시였다. 기독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설교에서 필요한 요소였다. 그렇지만 모든 도시의 청중들이 맨해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변증적 요소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설교에 부담을 가지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목회자는 청중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교에 변증적 요소를 얼마나 담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5. 책과 연관된 설교의 사례

팀 켈러의 설교 방법론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해 보겠다. 팀 켈러가 설교했던 “기독교의 문제: 왜 그렇게 믿기 힘든가” 시리즈 중 “지옥: 기독교의 하나님은 화난 심판자가 아닌가?”(누가복음 16장 19-31절)를 앞서 살펴보았던 5단계 구조에 따라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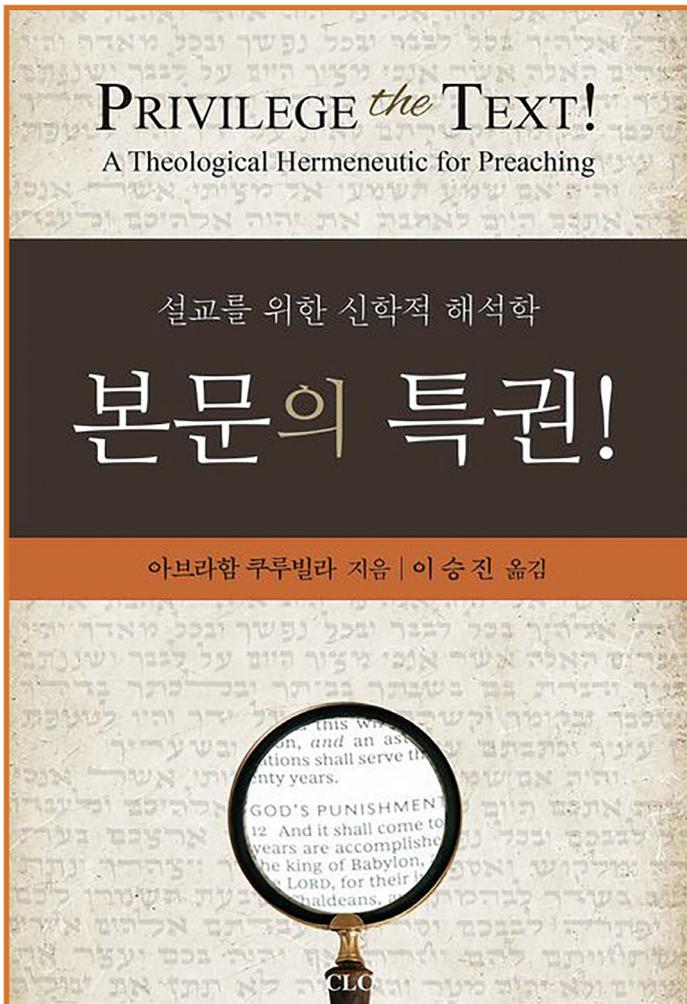
흐름	내용
도입	문제 제기: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의 심판의 개념의 양립이 가능한가?
초기 질문	성경의 응답: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였지만 지위와 부가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부자는 지옥에 갔다.
중기 질문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적응과 맞서기): 지옥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곳이라면 남은 정체성은 무엇인가?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정체성이다.
후기 질문	예수님을 통한 해결: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시하며 사랑이 진정한 정의(정체성)임을 제시
적용	적용점 제시: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결론

팀 켈러 목사의 설교와 설교 방법론을 담은 『팀 켈러의 설교』는 질문이 있는 청중들(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을 목회하는 현대 설교자들에게 길을 열어준다. 청중들의 문화와 시대 정신 그리고 마음을 고려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경험하며 성경 텍스트로 답을 찾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변증이 필요한 설교자들이라면 『팀 켈러의 설교』를 참고하여 설교문을 저술할 것을 추천한다.

아브라함 쿠루빌라, 『본문의 특권! : 설교를 위한 신학적 해석학』

장유나 (ThM, 실천신학 성경적 설교 2025)



▲ 아브라함 쿠루빌라의 책 "본문의 특권" 표지

1. 책과 저자에 대한 개괄적 소개

‘해돈 로빈슨 이후 최고의 설교학자’로 인정받는 아브라함 쿠루빌라는 달라스신학대학원의 목회학 교수이며 현직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 『본문의 특권: 설교를 위한 신학적 해석학』은 폴 리피르의 ‘텍스트 앞에 펼쳐진 세계’의 개념을 성경 해석학에 적용하여, 성경의 본문 자체가 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주목할 것 제안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성경 본문의 ‘문단’(pericope)은 본문의 세계와 청중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성경의 문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의도하는바 초역사적 실행성을 갖습니다. 이를 ‘문단신학’이라 명명합니다. 그는 문단신학을 적용하여 성경과 청중 세계의 통합을 위한 설교 해석학의 새로운 모델로서 ‘그리스도 형상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저서는 곧 성경의 각 문단에 담긴 문단신학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청중들의 삶에 구현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책의 내용과 특징

첫째, 쿠루빌라는 폴 리피르의 ‘텍스트 앞에 펼쳐진 세계’의 개념을 성경 해석학에 적용하여 성경 본문의 저자가 오늘의 청중에게 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해석학이 체계화 및 세부화의 과도한 신학적인 규정에 초점을 두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성경 본문 자체의 문단이 청중들에게 고유하게 의도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문단의 수사적인 독특성이 담긴 ‘본문 앞에 펼쳐 보이는 세계’에 주목할 것을 제시합니다.

둘째, 본문의 세계와 청중의 세계를 연결하는 설교의 중점으로 ‘문단신학’에 대해 소개합니다.

‘문단’(pericope)은 한 주제로 구성된 성경본문의 최소 단위입니다. 저자에 의하면 성경 본문의 특정 문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초역사적 실행성을 갖습니다. 이를 ‘문단신학’이라고 명명합니다. 문단신학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초역사적인 의도와 언약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과 청중의 상황을 이어주는 설교학적 실천에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문단의 실행성이 청중들의 삶에 적용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쿠루빌라는 성경과 청중 세계의 통합을 위한 기독교적 성경 해석의 새로운 모델로서 ‘그리스도 형상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각 문단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투영하고 있다는 이해의 해석법입니다. 구약 본문의 성급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은 구속사적 신학 주제와 결부하여 청중들에게 반복적인 설교만을 제시하게 합니다. 그는 이 같은 편파적인 구속사적 해석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교훈을 약화시키고 순종과 선행을 경시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 형상적 해석의 핵심은 성경의 문단신학을 바로 해석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3. 책의 유익한 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설교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본문이 의도하는 바에 충실한 본문 중심의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문단신학의 파악을 통해 성경 본문의 문단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약의 균형 있는 구속사적 해석과 설교에 유익합니다.
편파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문맥을 벗어나 모든 본문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획일화된 설교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균형 있는 해석은 신약에 등장하는 다양한 구약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지속적인 도덕적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의 모범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성경 본문과 청중의 삶을 연결하는 기독교적인 성화설교가 됩니다.
이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구속사적 관점의 삶의 실천을 권면하고 분별하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4. 책의 유의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유의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첫째, 전통적 해석학 곧 조직신학의 체계화와 명제화의 장점과 더불어 균형 있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속사적 토대가 수반되지 않은 문단신학은 편파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숲과 특정 문단의 나무 모두를 두루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본문 앞에 세계도 중요하지만 본문의 배후가 되는 역사적 배경의 이해가 주는 설교적 유익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둘은 배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의도 해석과 현대 청중의 적용을 위해서는 본문이 기록된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책의 내용의 설교 사례

저서의 등장하는 창세기 22장의 '아케다' (aqedah) 본문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합니다. 쿠루빌라는 창세기 22장을 예수 그리스도 대속적 희생을 모형론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문단신학에 대한 초점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분의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며, 이 믿음은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텍스트 앞에 펼쳐진 세계의 교훈). 이 믿음은 다른 모든 충성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경외와 동등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희생적 순종으로 드러난다(텍스트 앞에 펼쳐진 세계의 실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하나님에 대한 사랑/경외)을 상응하는 축복으로 보상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받아 주신다(텍스트 앞에 펼쳐진 세계의 교훈)¹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경외함을 행사해야 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우선 되는 것은 없어야 함”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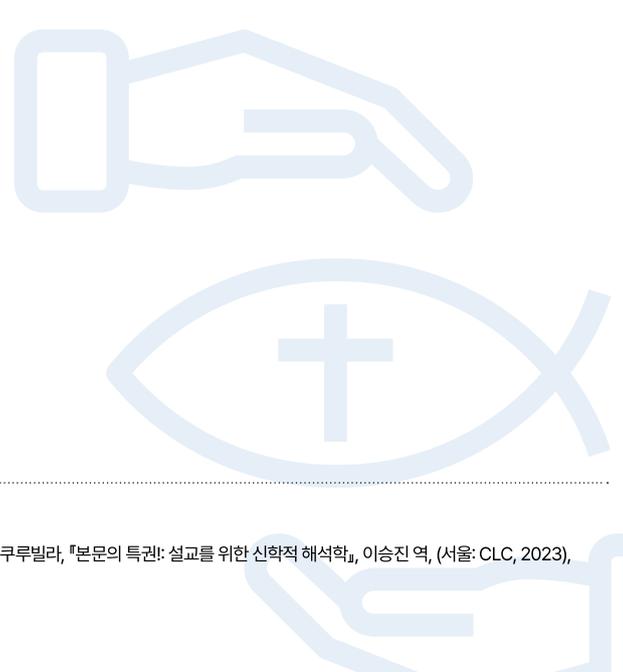
6. 결론

아브라함 쿠루빌라의 『본문의 특권: 설교를 위한 신학적 해석학』은 ‘문단신학’과 ‘그리스도 형상적 해석’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교자와 청중이 성경 본문이 의도하는 ‘본문 앞에 펼쳐진 세계’에 주목하도록 이끕니다. 동시에 이는 ‘기독교적 성화’에 대한 균형 잡힌 통찰을 제공하며, 신앙 고백과 삶의 실천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청중의 언어로 해석하고, 그 말씀이 일상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도록 돕는 일은 설교 사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쿠루빌라가 제시하는 새로운 해석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돕는 성육신적 설교 해석학의 한 모델이자, 본문 앞에 펼쳐진 세계와 오늘날 청중의 세계를 책임 있게 연결하는 설교적 상황화의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맺습니다.

참고문헌

1 아브라함 쿠루빌라, 『본문의 특권: 설교를 위한 신학적 해석학』, 이승진 역, (서울: CLC, 2023), 393-94.



Report on.

"Preaching and the Arts" by Dr. Paul Scott Wilson

Sophia Choi (M.Div. 2023, Ph.D. 2026)



◀ 폴 스콧 윌슨 박사 강연, "설교와 예술" 단체 사진
 ▼ 폴 스콧 윌슨 박사 / 통역 최빛나



In an address on April 28, 2025 titled "Preaching and the Arts", Dr. Paul Scott Wilson conveyed the message that preaching and the arts should be thought to have a closer relationship than commonly thought. Preaching, according to Dr. Wilson, is not just helped by the arts, but it constitutes an art form. While the success of a sermon is largely dependent on the Holy Spirit rather than on the sermon's creator. Dr. Wilson held that ministers have to be as gifted and creative as possible in their delivery. According to him, it is the duty of those called by God.

According to Dr. Wilson, art can be described as a purposeful and skilled creation that makes use of imagination and beauty within any form of human creativity. This was a common thread in Christian preaching; his use of storytelling was a reflection of this. The scriptures portray God as the all-powerful creator who, in the Old Testament, is described as a master craftsman, both a builder and a potter, and as a poet. True art is the work that raises man's consciousness of God and causes him to be drawn towards Him. It is an approach to God through creation. Sermons, whether formal or informal, are among the most universally practiced forms of art. In this sense, they may be ranked with music, painting, and architecture. This is not just something added on to the public meeting for worship, but rather an integral part of the worship itself, where the imagination and the word join together.

In the past, Protestants opposed art because their values put reason and their doctrine above the senses, and because they had a precedent for smashing images in earlier history. Notably, he pointed out that the Bible contains several passages that are favorable to artistic creation, including the craftsmanship of the tabernacle, the poetic language used in the Psalms, and the parables of Jesus. Dr. Wilson stated that preachers should consider imagination a useful tool in the search for the truth, rather than as something which is in opposition to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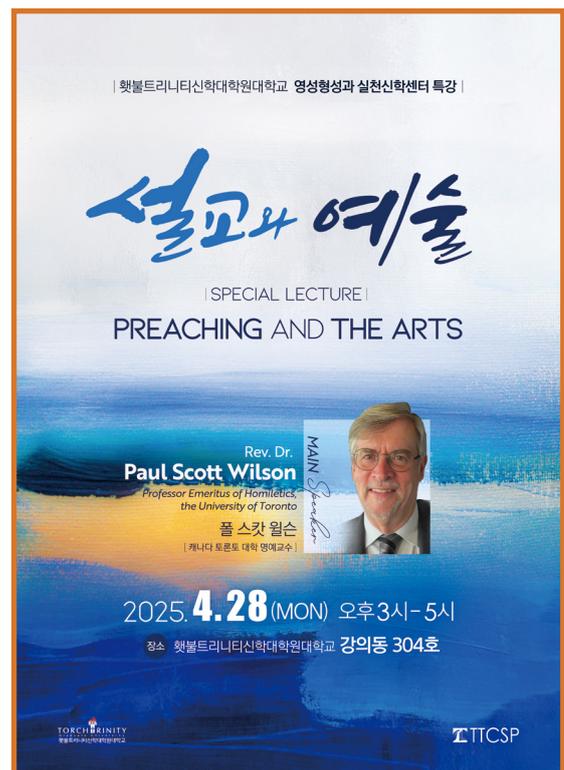
In the course of the address, it was urged that the demands of art are met by preaching, alike in respect of skill, of imagination, and of beauty. The preaching of the gospel, Dr. Wilson said, involves the traditional arts. Artistic preaching requires various artistic skills, including literary skills such as how one selects and interprets the Bible, sculptural skills in the crafting of character and personality, skills in music that affect the pitch and tone of the voice, architectural skills in building the composition of the sermon, and visual skills which help form mental pictures. In fact, imagination is a key that opens the Bible to readers, bringing its stories to life and encouraging them to think again about its message.

Dr. Wilson's lecture made a notable contribution in theology through polar imagination. One area where this was notably apparent is how the law and gospel are at work in a sermon. The contrast between salvation given by God and man's urgent need generates faith and hope. This is the essence of the gospel. One commonly used pattern in the building of sermons is trouble in

the biblical text; trouble in our world; grace in the biblical text; and grace in our world. By focusing on God and His work in four key areas, preachers can ensure their message is not just lecturing, but genuinely good news for their hearers. Its origin lies in theology.

Artistry in proclamation is the highest form of preaching art, said Dr. Wilson, as it involves the pastor daring to speak in the present tense of God's promises, which are authorized by Christ. Through its proclamation, preaching becomes a sacramental event. Christ's message brings the people forgiveness, new life, and grace in the preaching itself.

As an interpreter and member of the audience, I paid close attention to his words and messages. According to Dr. Wilson, the sermon highlighted the artistic side of preaching, which involves conveying meaning through not only the message but also through the associated emotional impact and a presentation both imaginative and beautiful. This experience has made me rethink preaching, not just as Bible exposition but as something more: creation, and joining God in His creative process of communication. The lecture has shown me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intellect, emotions, creativity, and the senses into preaching. In a sermon considered a fine art, God addresses His people, and Christ speaks in their assembly, imparting His teachings while also displaying grace to those who hear Him.



▲ 폴 스콧 윌슨 박사 강연, 포스터

Report on.

폴 스콧 윌슨 박사 강연, “설교와 예술” 후기

최빛나 (M.Div. 2023, Ph.D. 2026)

2025년 4월 28일, 『설교와 예술(Preaching and the Arts)』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폴 스콧 윌슨 박사는 설교와 예술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윌슨 박사의 강연에 의하면 설교는 예술의 도움을 받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형식을 이룬다. 그는 설교의 열매가 궁극적으로는 설교자의 능력보다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로서 설교의 전달에 있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은사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윌슨 박사는 예술을 인간의 모든 창조적 행위 안에서 상상력과 아름다움을 활용해 의도적이고 숙련되게 만들어 내는 작업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예술적 특성은 기독교 설교 전통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며, 강연에서 드러난 풍부한 이야기 방식 또한 이를 잘 보여준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한 창조주로 묘사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건축가이자 토기장이로, 그리고 시인으로 그린다. 참된 예술이란 인간의 의식을 하나님께로 일깨우고 그분께 이끌어 가는 작품이다. 이는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설교는 가장 보편적으로 실천되는 예술 가운데 하나이며, 음악, 회화, 건축과 같은 예술들과 나란히 놓일 수 있다. 설교는 예배라는 공적 모임에 덧붙여진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상상력과 말씀이 결합되는 예배의 본질적인 행위이다.

과거 개신교 전통은 이성과 교리를 감각보다 우선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상을 파괴해 온 전례로 인해 예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윌슨 박사는 성경 안에 예술적 창작을 긍정하는 본문들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했다. 성막의 정교한 제작 과정, 시편에 나타난 시적 언어,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예술적 표현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설교자들이 상상력을 진리에 대립되는 요소로 보지 말고, 진리를 탐구하는 데 유익한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전반에서 윌슨 박사는 설교가 기술, 상상력, 아름다움이라는 예술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말했다. 복음 설교는 전통적인 여러 예술 영역을 포함한다. 설교자는 성경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데 문학적 기술을 사용하며, 인물과 성격을 형성하는 데에는 조형적 감각이 필요하다. 또한 음성의 높낮이와 톤을 조절하는 음악적 기술, 설교의 전체 구조를 세우는 구조적 사고, 그리고 청중의 마음속에 생생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시각적 능력 역시 요구된다. 특히 상상력은 성경을 독자에게 열어주는 열쇠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그 메시지를 다시 생각하도록 이끈다.

윌슨 박사의 강연은 ‘극적(양극적) 상상력(polar imagin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이는 특히 설교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인간의 절박한 필요 사이의 대비는 믿음과 소망을 낳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그는 설교 구성의 한 예로 본문 내의 문제, 오늘의 문제, 본문 내의 은혜, 오늘의 은혜라는 네 가지 흐름을 제시했다. 이 네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출 때, 설교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청중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된다. 이러한 접근의 뿌리는 신학에 있다.

윌슨 박사는 설교 예술의 최고 형태로 선포를 제시했다. 선포란 목회자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시제로 담대히 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선포를 통해 설교는 성례전적 사건이 되며,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설교 그 자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용서와 새 생명, 그리고 은혜를 전달한다.

통역사이자 청중으로 강연에 참여한 필자는 윌슨 박사의 언어와 메시지에 깊이 귀 기울였다. 윌슨 박사는 설교가 단지 내용 전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울림과 상상력,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해 의미를 전하는 예술적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번 뜻깊은 경험은 설교를 단순한 성경해설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창조적 소통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강연은 설교가 이성뿐 아니라 감정, 창의성, 그리고 감각까지 아우를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예술로서의 설교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는 회중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침과 더불어 은혜를 베푸신다.

'다음 시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 후기

백승자 (KMDiv. 2018)



▲ 설교세미나 김병삼 목사

이번이 2번째 참여다. 첫 번째는 아무런 정보 없이 단지 우리 학교 실천신학 교수님이 강사로 초청되어 '네 페이지 설교'를 강의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다. 첫 번째를 경험한 나는 다시 참석하는 이 설교 세미나를 통해 얼마나 큰 치유와 영혼의 울림,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고 올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인지 설교가 잘 써졌다. 물론 아침까지 썼지만 말이다. 설교 세미나를 개최하신 분은 안덕원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신 친구 전창희 목사님이다. 종교교회의 담임 목사로 설교에 진심이다. 최근 뇌종양으로 수술까지 하셨다.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에 대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내서 그런지 건강이 쉽게 상하고 빨리 소천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설교 사역을 향한 열심으로 소진될 건강을 잘 챙기라는 애정 어린 말씀이었다.

설교 세미나의 취지는 다음 시대 목회자의 설교 역량을 높이고 목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년도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 목사님의 이런 비전이 종교교회 교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모두 한마음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많은 교우 분들이 최선을 다해 참석한 사역자들을 섬겨주셨다.

세미나 중간 휴식 시간마다 고급스럽고 맛있는 간식을 제공해 주셨다. 부산에서 오신 모 목사님은 이 간식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온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아마 참여해 본 분들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을

주일 저녁 사역을 마치고
피곤하지만 책상에 앉았다.
내일 있을
다음시대목회자를위한설교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요나서본문을 토대로
설교를 써 내려갔다.

것이다. 또한 세미나 한 세션이 끝날 때마다 책을 주셨는데 그 안에 세미나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을 향하여 직접 적으신 격려의 편지가 담겨있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섬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종교교회 교인 분들에게 사랑을 담아 감사드린다.

세미나가 열렸던 장소는 HL 인재 개발원인데, 외부인이 들어오기 힘든 곳이라 그런지 묘한 느낌이 들었다. 기업의 전략을 짜던 것처럼 비밀스럽게 보이고, 건축물은 수도사들이 살기 딱 좋아 보였다. 조용하고 폐쇄적이고 심신의 안정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말이다. 조경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마음에 평안을 안겨 주었다.

강의실 안에서의 세미나는 매우 다채로웠다. 우선 전창희 목사님은 성서 주석 방법론을 통해 설교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설교의 준비를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후 구체적으로 설교작성의 순서와 내용을 알려주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장주희 아나운서를 통해서도 설교 스피치 코칭을 받았다. 말의 들리는 단계는 귀, 머리, 마음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청중은 직접 자신에게 말하는 듯한 말투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기 때문에 마음까지 가기 위한 말은 1:1로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집중력과 메시지 전달력이 좋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설교자 목소리의 크기가 영적인 권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조언을

통해 이제는 절절하게 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영혼에게 하듯이, 진심을 다해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서대학교 안근조 교수님은 본문에서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요나와 선원들의 반응을 통해 오히려 요나보다 더 신앙적인 선원들과 선장의 대조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말씀 속에서 적용점을 찾는 것은 결국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려면 질문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옳은 이야기만 하는 옴의 세 친구보다 끊임없이 질문했던 옴을 하나님은 결국 더 좋아하셨다는 하나의 예도 들어주셨다.

안덕원 교수님은 '네 페이지 설교'에 대한 강의와 함께 설교자를 위한 독서와 글쓰기 방법을 제시하셨다. 많은 양의 독서와 메모, 정리, 독서 모임 등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셨는데 특히 글을 쓸 때는 문장을 통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설교를 하는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다. 특히, 결핍이 오히려 강력한 동기 부여라는 말은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나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다.

세미나 첫날 저녁이 끝나기 30분 전 쯤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았다. 가족 중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지인의 70대 이모님이 난소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하였다. 혹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임종 예배를 지금 드려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 있었다. 설교 세미나를 열심히 들었던 나는 세미나의 내용과 분위기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 세미나를 통해 들은대로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세로 말씀을 나누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 9시, 세미나 일정이 끝나고 바로 가겠다고 말해버렸다. 나는 사실 임종 예배는 처음이었다. 만약 내가 오늘 설교 세미나를 듣지 않았다면 경험이 많지 않은 목사라 거절했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목사님이 아닌 나를 지목해서 연락을 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외부 출입은 금지인데 경비실에 이야기하니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시라고 말해 주셨다.

서울 적십자 병원 호스피스 병동까지 갔다. 연락을 준 지인과 이모부님, 그리고 사위가 있었다. 준비한 대로 예배드리고 짧게 설교까지 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니 정말 뿌듯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12시 전에 다시 세미나가 열리는 곳으로 돌아왔다. 어쩔 설교 세미나를 들은 첫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세미나 첫날의 임종 예배는 설교 세미나의 열매였다. 부족한 목회자인 나를 위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능력있는 전문가들(교수님과 목사님, 아나운서님)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종교교회 관계자님들과 집사님들)이 헌신해 주신 그 사랑에, 한 영혼의 임종 예배와 그 가족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설교 세미나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겠다.

마지막 세미나는 40년간 만나교회에서 목회하신 김병삼 목사님의 목회 경험을 들었다. 강의를 명쾌하고 탁월했다. 건강한 목회 철학의 유지와 예배에 대한 성실한 자세, 그리고 청중과의 소통을 위해 부단히 애쓰신 목사님의 신실함이 존경스럽다. 2026년도까지 설교를 다 준비하고 2027년을 위한 설교를 새벽에 한편 더 쓰셨다고 하시니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존경스럽다. 다른 목사님의 질문들이 오가는 동안, 지나는 세월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부끄러워 나는 한참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나의 성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글쓰기와 책 읽기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꾸준한 나의 루틴을 만들어보고 싶다. 설교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들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는 불완전한 설교들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철도 길의 열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안정성이 있고 탈선하지 않도록 탄탄하게 설교를 쓸 수 있도록 네 페이지 설교와 같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배움과 나눔을 통해 큰 도전과 격려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과 종교교회 목사님, 섬기는 관계자들과 강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3회 다음세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세미나
2025.10.20(월)-22(수) | HL 인재개발원

이번 설교 세미나를 통해, 설교 시리즈(8주)
"오나서를 설교하다"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등록비 3만원 (현장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2박 3일 숙박비는 전액 지원하며, 부분 참석은 불가합니다.
문의) 02.6322.2160 / 02.6322.2108

프로그램

- Session.1 설교자를 위한 성서 주석 방법론 (정철희 목사)
- Session.2 설교 방법론 (안덕원 교수)
- Session.3 목회자를 위한 스피치 (장주의 아나운서)
- Session.4 요나의 표적 (안근조 교수)
- Session.5 예배와 설교 (김병삼 목사)
- Session.6 그룹토의를 통한 설교문 작성

강사

- 안덕원 (목사) 호서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원교회 담임
- 안근조 (교수) 호서대학교 명예교수, 안근조교회 담임
-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담임
- 장주의 (아나운서) KBS 1라디오 '가톨릭시대' 진행,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진행
- 정철희 (목사) 호서대학교 명예교수, 정철희교회 담임

주최: 하늘다리 아카데미 | 후원: 종교교회, 네그로스, 햇빛트리네트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 설교 세미나 포스터

<11년짜리 1학기 - 성경적 설교 과정 한 학기를 지나고>

김한나 (ThM. 실천신학 성경적 설교 2025)



▼ 설교세미나 노트

▲ 설교세미나 전창희 안덕원



신학을 하면 으레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

누군가는 강단 앞에 서는 것이 수월하지만

누군가는 강단에 설 기회 자체를 사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어려움 없이 강단에 선 '설교자'일지라도

정말 설교하는 '설교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인 듯하다.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닿아야 할 것 같다.

꽤 어렸던 스무 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평생 섬길 것을 내 삶의 이유요 방향으로 삼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 받는 '준비된 자가 되고 싶어서' 많이 고민했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을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다.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 곧 주님 마음을 아는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 '준비된 자의 기본 소양일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고, 이 길로 신대원에 진학하였다. 소명받은 이래 수년 동안 줄곧 교육 부서를 담당하면서도, 교회 사역, 소위 말하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대원을 졸업하기 직전에 '현타'가 강하게 왔다. 과연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맞는가, 소명에 대한 의심까지 불러일으킨 내 마음 속한 문장,

“말씀 사역을 하고 싶다.”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씀 사역이 처음부터 '설교'는 아니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꿈꾸었다. 그래서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고, 신대원을 졸업 후 본교의 기독교 교육(Christian Education, Th. M) 과정에 진학했으나, 번번이 과정 이수의 실패를 겪었다. 그러다. 무려 11년 만에 '준비된 자'의 반열에 들어설 선물같은 기회를 얻은 것이 바로 실천신학(PT) '성경적 설교학' 전공으로의 전과였다.

지난했던 “잃어버린 11년”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육 사역' 으로부터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설교 사역'으로 나의 소망은 전환되었다. 십수 년이 넘게 교육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강단에 서서 설교할 기회는 얻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이런 식으로 꿈을 끈다.

그렇게 꿈을 끈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5년 여름, 마음 속으로 이미 10번도 더 졸업한 햇볼트리니티의 교정으로 돌아왔다. 시작과 다른 과정을 지나게 되었고, 시작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설교 사역에 대해 진지하게 꿈꾸기 시작한 그 '때'와 햇볼트리니티의 성경적 설교 전공이 개설된 '시기'가 거의 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수많은 다양한 모양의 조각을 맞춰야 하는 '직소 퍼즐'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조각은 다 맞는다. 그리고 작품이 된다.

가을 학기가 첫 학기가 되었다. '갑작스러워도' 선물은 선물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니 버릴 것이 없었다. 예레미야서를 통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작성과 실제, 한국의 저명한 설교가들에 관한 연구와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매주의 수업이 소중했다. “준비되어 가는 느낌이 총만한 시간”이었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또 다른 선물이 있었다.

제3회 “다음 시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 참석이 그것이다.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이 진정한 설교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세미나의 주최 목적과 '종교교회'의 물심양면 귀한 섬김과 헌신이 담긴 정말 “명품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위로와 격려가 있었고 배움과 감사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설교 사역에 대한 엄중한 부담, 사명감을 다지게 되었다. 세미나의 처음과 끝에 대한 이미지를 지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한탄스럽다.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셨던 것과 부활 후 제자들을 위해 빵과 숯불에 고기를 구워 준비해 놓으셨던 성경의 장면들이 겹쳐지는 (overlap) 듯했다. 그 사랑과 정성, 진심이 나의 눈과 마음에 오롯이 새겨졌다.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귀한 세미나 사역을 준비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에 감사하다. 여기에서 시작된 마중물로 인해 한국교회 곳곳에서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 닿는 곳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새 꿈을 꾸게 되었다.

설교학을 시작한 한 학기 동안,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통해 설교에 대하여 섬세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다.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면, 설교자에서 설교가로 '준비된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현재의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이런 맥락에서 '설교 아웃라인'을 끼적이기 수준으로 적어 보았다. '한 학기'라는 선물과 같은 이 시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과연 설교 아웃라인을 '대략' 적어 볼 재간이 생겼을까 싶다.

[설교 작성을 위한 아웃라인]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a)”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창조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구속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읽히고 들리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2.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는 구원이다. 날 때부터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갈 운명의 인간들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창조주가 피조하신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이다. 구원은 “받는 것”이다. 주면 받으면 되는 구원, 선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의 수여자시면서 동시에 성취자이시며 구원, 그 자체라고 말한다. 구원이신 하나님, 곧 스스로 계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을 창조 활동의 도구로만 쓰지 않으시고, 말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로 오셨다(예수 그리스도).

이제 일련의 과정 후에 준비된 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설교자로 시작하였으나 '설교가'로서 쓰임 받을 단 하루를 소망하며, '터덜터덜'하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갈 길을 걸어가야겠다. 비단 그 '단 하루'를 허락받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가 넘치는 <11년짜리 1학기>였다.

앞으로 모든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만 영광을!

설교자를 위한 독서와 글쓰기

안덕원

독서에 대한 유명한 저서를 읽거나 소위 전문가들의 특강을 접하면 주눅이 든다. 글을 쓰고 연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명함을 내밀 처지가 아니다. 학문의 수준이 미천하여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힘에 겨워 허덕이고, 독서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했다. 이 글은 필자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조 섞인 성찰, 어쩌면 필자 자신의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갈급함의 고백이며, 필자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나눔이다.

1.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설교자들에게 독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필수적인 의무다.

로이드 존스는 독서를 싫어한다면 목회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하는 말과 글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의 결과다. 입력 없이 출력을 기대하는 것은 일단 비상식적이다. 좋은 책을 읽지 않고 좋은 글을 쓴다는 생각은 심각한 착각이며 모순이다. 독서를 통해 아름다운 표현을 배울 수 있고, 좋은 글을 인용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고 맺을 것인지, 언제 어떻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해소시킬 것인지, 지혜와 요령을 얻을 수 있다.¹ 비단 미려한 문장의 사용이나 논리 구조의 탄탄함의 습득뿐이겠는가? 설교자들에게 독서는 지성적 훈련이자 영적 실천이다. 좋은 글은 인간의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그들의 경험과 소통하게 해주며, 결국 독자들을 사려 깊은 성찰의 세계로 인도한다. 소설가 조지 손더스(George Saunders)는 독서를 “자신을 더 포용력 있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라고 말하며 독서하는 이들은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안다고 표현한다.²

개인적으로 독서의 가장 큰 이점은 자신의 작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지식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독서의 이유는 충분하다. “생각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신학 안으로 계속해서 신선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한다.”³

나의 작음을 알아차리고 배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겸손한 경청에의 갈망이 바로 독서의 유익이 아닐까? 많은 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좋은 글을 읽으면 신선한 통찰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이따금 나의 말과 글로 사용하게 될 때의 희열이 있다. 이 또한 독서가 가져다주는 선물일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

2. 독서를 위한 제언

1) 다독

우선 많이 읽어야 한다. 땅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명말 청초의 사상가 고염무(顧炎武, 1613~1682)의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다니다(독서만권 행만리로, 讀書萬卷 行萬里路)”는 설교자들에게 특별히 유용한 문장이다. 설교자는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배우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편식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책을 읽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기채는 세례, 성만찬, 성육신에 비유하여 책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즉 성경적인 시각에서 세례를 베풀어 해석해야 하는 소위 일반 서적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풍성하게 나누는 성만찬을 위한 신앙 서적들, 온전히 우리에게 체화되어야 할 성육신의 대상인 성경으로 구분하여 골고루 읽기를 권유한다.⁴ **분별하되 가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 각각의 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참으로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 모임과 나눔

혼자 독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독서 모임은 독서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모임을 통해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 추천한다. 주제 혹은 작가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로완 윌리엄스, 유진 피터슨, 팀 켈러와 같이 유명 작가의 책을 시리즈로 읽거나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작가의 책을 읽는 방법도 좋다.⁵ 사역자들끼리의 독서 모임도 좋고 주민센터 모임도 좋다. SNS를 통한 지역 모임(밴드나 당군), 출판사나 트레바리와 같은 독서 모임에서 정보를 구하고 내용과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모임의 일원이 되면 정해진 책 또는 분량을 읽지 못했더라도 무조건 참석하라. 빠지는 것도 습관이 되니 억지로라도 가서 모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자극과 도전을 받는 것만으로도 모임에 갈 이유는 충분하다.

3) 시간과 장소 정하기

각자 편한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특정 요일을 정해서 책 한 권 들고 근처의 카페로 향한다. 한산한 시간에 전철을 타고 책을 읽는 분도 있다. 별의별 방법이 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독서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선택하라.

4) 서점과 도서관 방문하기

일단 많은 다양한 책이 있는 곳에 가서 둘러보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읽어보라. 온라인 서점이 대세라고 해도 공간과 분위기가 제공하는 유익이 적지 않다. 나들이 삼아 들렀다가 우연히 귀한 책을 만나는 기쁨은 선물같은 경험이다. 책이 있는 공간에 방문할 날을 정해놓는 것도 권할만한 방법이다.

5)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세계적인 설교 학자 폴 스콧 윌슨(Paul Scott Wilson)에게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10분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늘 잊지 않고,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분투한다고 고백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 성취의 배후에는 경건한 영적 독서와 글쓰기 훈련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을 위해 읽을거리를 준비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조건 책 한 권을 들고 타는 등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메모와 정리

무조건 적어야 한다. 머리에 담긴 지식은 절대 신뢰하지 말라. 오로지 기록만이 정확하고 정확하며 보존과 실제 사용에 유용하다. 좋은 문장, 책에 대한 감상, 예화, 질문, 목상의 내용, 떠오르는 아이디어 등을 설교 주제별로 혹은 성경 구절과 절기에 따라 구분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모든 경험을 흘려보내지 말고 기록하라. 디지털이든 노트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자신의 기록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습관이다. 오늘의 작은 메모가 내일의 설교를 풍성하게 만든다.

7) 암기하고 나누기

좋은 문구는 암기하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목상 나눔이나 지인과의 대화, 설교에서 사용하도록 노력하라. 일기나 블로그에 독후감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추천한다.

8) 디지털 디톡스

독서 최대의 장애물은 핸드폰이 아닐까?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핸드폰의 사용을 원형교도소(panopticon)에 갇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한다.⁶ 즉 손가락으로 건드리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동하는 소통 방식이 밖을 볼 수 없게 만든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는 비유다. 연관 검색어와 영상 정보의 세계에서 벗어나 독서가 제공하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나아가자. 유튜브로 책 소개 및 감상을 보는 것도 독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직접 읽음으로써 얻는 유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자.

9) 독서 모임을 위해 추천하는 책과 저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멘토, 독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저서들도 귀한 자료가 된다. 독서 모임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면서 얻은 결론은 좋은 책은 정말 많고, 일단 어설피고 힘들더라도 시작하고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많은 좋은 책들 중에서 몇 권을 추천하자면, 필자가 최근에 발견하고 실제로 독서 모임에서 사용하는 캐런 스왈로우 프라이어의 '소셜 읽는 신자에게 생기는 일'⁷을 추천한다. 이 책의 저자는 열두 권의 고전을 엄선하여 명저의 웅숭깊은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저자의 글과 함께, 소개된 책들도 함께 읽으며 도서 모임을 진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김기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⁸는 영성 고전 22권을 망라하고 있다.

일단 내용이 길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문체와 친절한 안내가 돋보인다. 김기현의 『근고한 날에는 생각하라』⁹에는 인문 고전 15권에 대한 소개와 감상이 담겨있다. 진지한 성찰로 인도하는 책이다. 두 권 모두 이미 읽은 책들도 돌아보게 만드는 힘있다. 독서 모임을 통해 함께 읽고 나누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김기현의 『글 쓰는 그리스도인』(성서유니온, 2017)도 추천한다.¹⁰ 글을 쓰는 이들을 위한 매우 깊이 있고 실제적인 조언을 담았다. 박총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¹¹은 저자가 감동받은 구절을 인용하여 개인적인 감상을 적은 책인데 인용한 책의 범위가 예사롭지 않다. 이 책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어 구매하거나 대출하거나 선물한 책이 적지 않았다. 지적, 영적, 감성적 자극을 받기에 참 좋은 책이다. 독서를 통해 무엇인가를 속히 얻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느긋한 기대로 읽어야겠다.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계획보다 지극히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책을 잡고 읽는 일이다.

3. 글쓰기를 위한 제언

1) 핵심을 파악하고 생각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쓰려 애쓰면 손이 굳고 생각이 막힌다. 초고는 투박해도 괜찮다.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전하고 싶은 복음의 중심'이 분명한가이다. 핵심 메시지를 놓치면 아무리 유려한 문장도 공허해지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설교를 작성하는 이들에게 세 가지 설교 이론을 특히 권하고 싶다. 해돈 로빈슨(Haddon Robinson)이 말한 "빅 아이디어"는 설교 전체를 하나의 중심 사상으로 꿰는 작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토마스 롱(Thomas G. Long)의 "초점 진술"은 본문이 지금 여기의 회중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분명히 붙잡도록 돕는다. 여기에 더해 폴 스콧 윌슨(Paul Scott Wilson)의 네 페이지 설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설교가 인간의 문제 진단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소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학적 방향타가 된다. 표현과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이 이론들은 모두 설교자가 먼저 주제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조언을 건넨다. 설교 작성을 시작할 때 중심을 단단히 세워 두면, 이후의 해석과 적용, 예화의 선택까지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

2) 정확한 문장으로 만들기

초고 단계에서는 생각의 흐름을 막지 말고 자유롭게 쓰되, 퇴고의 과정에서는 문장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듬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글 속에서 흐릿해지기 쉽다. 학생들의 과제를 읽다 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문장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는 대개 글쓰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을 완결된 형태로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미려한 문장을 쓰는 일은 분명 쉽지 않다. 그러나 정확한 글쓰기는 약간의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분명한 성과를 경험할 수 있다.¹²

3) 잘 쓰이는 시간과 공간 정하기

앞서 언급했던 독서를 위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한다. 유독 글이 잘 써지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의 고요가 좋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의 소음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 이른 아침 시간을 가장 선호한다. 연구실이나 집에서 작업하다가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카페를 찾는다. 중요한 것은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 자주 찾아오는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이다. 설교자는 자기 몸과 마음이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발견해야 한다. 그곳이 글쓰기의 리듬을 만들어준다. 거룩한 글쓰기의 제단이 된다.

4)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정해놓고 쓰기

글쓰기는 재능보다 습관에 가깝다. 매일 많은 분량을 쓰지 않아도 좋다. 한 문단, 혹은 한 줄이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매일 쓰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정해진 분량을 채우는 훈련은 설교자가 말씀 앞에 규칙적으로 서도록 돕는다. 말씀을 붙드는 성실함은 이렇게 글쓰기의 습관 속에서 길러진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하루에 한 문단 혹은 한 문장 쓰기를 실천하고 있다.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묵상과 함께 글을 쓴다. 원고가 밀려있어 어쩔 수 없이 생긴 습관이기도 하지만, 일단 몸을 길들여놓으니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글이 계속 생산된다. 몇 년 전, 소재가 궁색하여 쓰는 기도를 시작하였고, 그 기도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단행본으로 나오게 되었다. 물론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소한 습관이 책으로 열매를 맺은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다.

5) 미리 쓰기

설교는 무자비하게 빨리 다가온다. 본래 시간이 인격을 갖지 못한 탓이니 피할 방도가 없다. 무조건 미리 써야 한다. 급박한 일정에서 나온 설교는 충분히 숙성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여유 있을 때 미리 써둔 글은 훗날 큰 자산이 된다. 미리 써놓은 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읽고, 고쳐지고, 깊어진다. 설교는 즉흥이 아니라 숙성의 산물임을 명심하라. 어떤 이는 설교하기 한 달 전에 설교 원고의 작성을 마친다고 한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심지어 약 1년 후에 할 설교를 미리 완성해 놓는다고 한다.

6) 발췌, 요약, 인용을 적절히 활용하기

유시민 작가는 글쓰기의 출발점을 발췌와 요약으로 꼽는다.¹³ 좋은 문장을 접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책 전체를 1-2장으로 요약한다거나, 몇 개의 문단을 10줄로 요약하는 등,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요약을 연습하기를 추천한다. 인용은 설교자의 빈자리를 메우는 장치가 아니라, 사유를 확장하는 동반자여야 한다. 직접 인용은 훌륭한 문장의 내용과 힘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고, 간접 인용은 생각의 흐름을 빌리는 방식이며, 해석적 인용은 인용문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설교자는 이 셋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례를 주어야 할 이야기가 있고, 함께 나누기에 적합한 글들도 있다. 지혜롭게 구분하여

선용해야겠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인용이 설교를 가리는가, 아니면 복음을 더 선명하게 하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7) 수정 보완-겸손하고 단순하게 "계속" 고치기

좋은 설교문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설교문을 다시 읽을 때는 "이 문장이 회중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를 질문하라. 불필요한 말은 덜어내고, 추상적인 표현은 구체화하며, 리듬이 살아 있는지 점검하라. 퇴고는 글을 고치는 일이면서 동시에 설교자의 생각과 신학을 다듬는 과정이다. 그러니 고치고 다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또한 화려한 미사여구나 현학적 표현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자. 멋진 문장이 곧 좋은 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겸손과 정직에서 우러난 신실한 설교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필자는 설교를 작성할 때 되도록 단문으로 만들라고 조언한다. 그래야 군더더기를 덜어내기 쉽고, 설교를 회중에게 전달하기에 효과적이다.

8) 제삼자에게 읽히기

설교자는 자신의 글에 가장 익숙한 독자이기에 가장 위험한 독자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평신도에게 글을 읽혀보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 길게 느껴지는 대목, 감동이 오는 지점을 솔직하게 묻는 것이 좋다. 설교는 혼자 쓰지만,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자신의 설교를 읽어줄 사람들에게 매주 점검을 받는다면 좋겠다.

4. 말씀과 언어 앞에 선 설교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설교의 방법과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깊은 자리로 옮기려 한다. 글의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끝에 두고 싶었다. 흔히 가장 중요한 말은 맨 마지막에 남겨 둔다고 하지 않는가. 설교자는 말을 다루는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사람이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이다. 말씀과 언어 앞에서의 태도가 설교의 깊이를 빚어내고, 결국 그 설교가 향하는 방향을 결정한다.

1) 설교자는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선다.

설교자는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다. 맡겨진 말씀을 품고, 다시 건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글쓰기에는 늘 경위가 있어야 한다. 내 생각을 말씀 위에 얹으려는 유혹보다, 말씀이 나를 넘어 말하게 하려는 기다림이 먼저다. 증인은 진실하게 사건의 전모를 전하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보고 듣고, 왜곡 없이 겸손하게 전해야 한다.¹⁴

2) 설교자는 먼저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설교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서를 철저히 맛있게 읽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먹으라』에서 묵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가(hagah)를 소개하면서 그것은 마치 사자가 염소를, 혹은 개가 뼈다귀를 씹어 먹고 살살이 훅으며 소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맛보고 음미하고, 그 달콤하고 향긋하며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단어들을 기대하고 받아먹으면서 부드럽게 가르랑거리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게 되는 그런 독서”라고 부연한다.¹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열한 독서와 묵상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설교자는 하나님 사랑의 충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설교자는 책과 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다. 성경의 말씀이 나를 흔들어 깨우고, 책 속의 문장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삶의 현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때, 아름답고 성숙한 설교의 언어가 태어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먼저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수많은 지성의 목소리를, 회중의 희로애락을 엿들려 들어야 한다. 듣지 않고 전할 수 없다. 겸손한 들음의 토양 위에서 설교의 언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

3) 설교자는 자신의 삶을 통과한 언어만 사용한다.

설교자의 언어는 삶을 우회할 수 없다. 아직 견뎌보지 않은 고난이나 기도로 씨름하지 않은 확신은 진실한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없다. 설교자는 솔직해야 한다. 경험하지 않은 일들과 난제들을 감히 다 알고 있다는 듯 선불리 해석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말아야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설교자의 본분은 증언이다. 현학적 과시나 피상적 위로, 선부른 조언은 증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속이는 기만이 되기 쉽다. 그렇기에 설교에서 인용은 경험하지 못한 사례에 접근하고 소개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설교자는 언어의 힘을 경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쉽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설교자는 말의 영향력을 알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저속한 언어를 결코 사용할 수 없다. 편향된 시선이 담기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과장된 확신, 단정적인 표현, 쉽게 규정하는 언어도 경계해야 한다. 설교자는 품위와 신뢰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타인이나 특정 그룹 혐오/비하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설교내용을 들은 성도는 5명 중 1명 정도인데 반해, 목회자들은 11%만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응답했다.¹⁶ 청중과 설교자 사이에 놓인 인식의 차이가 두 배가 넘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자 중에 저속하거나 편향된 언어를 사용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치열하게 고쳐야겠다.

5) 설교자의 글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완성된다.

설교자의 글쓰기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기도 혹은 성찰의 시간에 가깝다. 왜냐하면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중의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백과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이 말씀 안에 녹여지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에 밝은 빛을 비취달라고 간구해야겠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아둔한 감각으로는 도무지 진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교자의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언어를 대하는 설교자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독서와 글쓰기는 기도와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좋은 설교는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고 믿는다. 절대 만만치 않기에 늘 감당하기에 벅하다. 앞서 고백했듯이 필자는 글쓰기의 전문가가 아니다. 필자 자신의 글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린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도 사실 지극히 평범한 개인적인 생각을 부담 없이 정리한 것이다. 필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독자들에게 오히려 위안이 되고 소박한 나눔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설교자의 글쓰기 여정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도우심을 믿는다. 설교자로 부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필자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나누면서 글을 맺는다.

“나는 성실하게 읽고, 듣고,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는가?”

“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적, 영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

“이 문장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가, 아니면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가?”

“나는 내가 쓴 문장에 어울리는, 내가 주장한 내용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글은 『강단과 목회』에 기고한 필자의 글, “설교자와 독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특별히 3장 이후의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다. 『강단과 목회』, 203 (2025. 7-8), 144-47.

- 1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Jr. 『설교자의 서재-창조적 설교를 위한 세속적 책 읽기』, 오현미 옮김 (복있는 사람, 2014), 36. 이 부분은 특별히 단편소설이 주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소설가, 전기 작가, 시인,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지적인 자극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 2 조지 손더스,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 정영목 옮김(어크로스, 2023), 18-19.
- 3 위의 책, 13.
- 4 한기재, 『삶을 변혁시키는 책 읽기』(두란노, 2014).
- 5 로완 윌리엄스, 유진 피터슨, 팀 켈러와 같이 유명 작가의 책을 시리즈로 읽거나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작가의 책을 읽는 방법도 좋다. 앞서 인용한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Jr.의 저서, 『설교자의 서재-창조적 설교를 위한 세속적 책 읽기』는 세속적인 글을 어떻게 읽고 설교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꼼꼼하고 친절한 안내를 담고 있다.
- 6 제임스 스미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박세혁 옮김 (IVP, 2018), 249.
- 7 캐런 스왈로우 프라이어, 『소설 읽는 신자에게 생기는 일』, 홍종락 옮김 (무근검, 2022).
- 8 김기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조이박스, 2023).
- 9 김기현,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조이박스, 2023).
- 10 김기현의 『글 쓰는 그리스도인』(성서유니온, 2017)도 추천한다. 글을 쓰는 이들을 위한 매우 깊이 있고 실제적인 조언을 담았다.
- 11 박충, 『내 삶을 바꾼 한 구절』(포이에마, 2013).
- 12 설교 작성의 과정에 관한 다음 저서를 참고하라. 김영복, 『설교자의 일주일』(복있는사람, 2017).
- 13 유시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생각의길, 2015), 61-73.
- 14 토마스 G 롱, 『증언설교』 이우제, 황의무역 (CLC, 2019).
- 15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으라』(IVP, 2018), 21-22.

¹⁶ https://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35 2025년 12월 20일 접속.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목회데이터연구소 외,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두란노, 2025), 56.

<설교자의 서재> '신학과 문학' 독서모임 후기

차두진 (KMDiv. 2018)



▲ 설교자의 서재 모임

**<설교자의 서재>는 영성형성·실천신학센터(TTCSP)가 주관하고,
안덕원 교수님의 지도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독서모임입니다.**

2022년 「교회력에 따른 독서모임」을 첫 번째 시리즈로 시작한 이래, 매달 한두 권의 책을 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며 꾸준히 책을 읽고 대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설교학 및 신학 서적뿐 아니라, 음악·미술·문학 등 설교자의 시야를 넓혀 주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함께 선정해 읽고 토론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모임에 참여한 이들도 어느덧 50명을 훌쩍 넘었고, 몇 해째 꾸준히 자리를 지켜 온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독서가 저자와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라면, <설교자의 서재> 독서모임은 그 대화의 자리에 다른 이들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지점들, 혹은 내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대목에 대한 타인의 통찰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경험은 독서모임만이 지닌 고유한 매력일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사고의 폭은 한층 깊어지고,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타인의 경험과 시선이 더해지며 독서의 기쁨은 더욱 증폭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모임은 '신학과 문학'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양재동에 위치한 '마음지킴 상담센터'에 예닐곱 명이 모여 일 년 동안 열 권 남짓의 소설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각자가 책을 읽고, 모임 자리에서 소감을 나눈 뒤 주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발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매회 두 시간가량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설교자의 서재> 모임은 주로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책거리를 할 때에만 오프라인으로 모였지만, 이번 '신학과 문학' 시리즈는 전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한층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모임에 익숙해진 탓에 장소로 이동하는 일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표정을 읽으며 공감하는 경험은 온라인에서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임에는 햇볼트리니티 졸업생과 재학생뿐 아니라 소개를 통해 참여한 분들도 함께했는데, 그중에는 가톨릭 신자와 불교 신자도 계서 농담 삼아 '불자와 함께하는 설교자의 서재'가 되었다고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양 고전소설의 배경에는 기독교 신학과 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에, 기독교적 주제가 오가더라도 비신앙인 참여자들 역시 큰 거부감 없이 모임에 함께할 수 있었던 듯합니다.

'신학과 문학' 모임은 캐런 스왈로우 프라이어(Karen Swallow Prior)의 《소설 읽는 신자에게 생기는 일》(원제: On Reading Well)을 주교재로 삼아, 매월 한 개의 챕터를 읽고 그 장에서 소개된 소설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덕스럽게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려 깊고도 탁월하게 안내해 주는 좋은 길잡이였습니다. 저자는 '잘 읽는 것'을 곧 '덕스럽게 읽는 것'으로 설명하며, 좋은 문학 작품은 우리의 도덕적 감각을 일깨우고, 꼼꼼한 독서와 통찰력 있는 해석의 과정을 통해 덕을 함양하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책의 내용뿐 아니라 '읽는 행위 자체가 덕스러울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새로우면서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기독교의 덕목 12개를 선정하고 각각의 덕목을 고취할 수 있는 소설을 선택하여 설명해줍니다.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기본 덕목으로 분별, 절제, 정의, 용기라는 네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을 다룹니다. 헨리 필딩의 《톰 존스의 모험》은 톰 존스라는 미숙한 청년이 분별의 덕을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개츠비의 절제라는 덕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떤 파국을 만들어가는지 설명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런던과 파리의 모습과 희생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드니 카턴을,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는 허크가 용기의 덕을 갖춰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2부에서는 인간 본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생기는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을 신학적 덕목으로 설명합니다. 앤드류 슈사쿠의 《침묵》, 코맥 맥카시의 《로드》,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

리치의 죽음》에서는 각각의 절망스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덕목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부에서는 칠죄종의 반대 덕목으로 자선, 절제, 정결, 부지런함, 인내, 친절, 겸손의 덕을 설명하며 이 덕목들을 천국의 덕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디스 워튼의 《이선 프롬》은 주인공 이선 프롬의 정욕으로 인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몰락한 모습을 보여주며 정결의 덕을 설명합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통해서는 부지런함의 덕을, 제인 오스틴의 《설득》에서는 앤 엘리엇의 인내를, 조지 손더스의 (12월 10일)은 어린 아이와 자살을 시도하는 중년 환자가 서로 친절을 베풀며 구원받는 모습을, 플래너리 오코너의 《계시》와 《오르는 것들은 한데 모인다》에서는 내재화되어 인식하지도 못하는 교만을 폭력적인 사건을 통해 경고하며 겸손의 덕을 설명합니다.

나열된 덕목들만 보면, 이 책이 자칫 교훈적인 독서만을 강조하는 책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오히려 C. S. 루이스의 말, 곧 "윤리적인 것은 곧 탁월하게 미학적이다"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좋은 문학 작품은 도덕적으로 의미 있을 뿐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뛰어나 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책의 내용을 통해 덕을 배우기도 하지만, 소설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책을 느끼게 읽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덕을 수양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자의 주장에 살짝 손가락을 얹어 본다면, 어쩌면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일 또한 덕을 쌓는 한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독서모임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유보할 것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와 훈련은 충분히 덕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함께 읽는 독서모임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참여자들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인 소설 속 인물들을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대하며, 그들에게 동정과 비난, 이해와 거부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덕과 부덕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들을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독서모임을 하다 보면, 기독교인은 왜 소설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종종 오르내립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도피처로, 혹은 어떤 의무감에 의해 소설을 읽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은총의 개념을 문화의 영역까지 확장해 본다면, 좋은 문학 작품을 성실하게 읽는 일 역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학 속 상상의 이야기는 종종 현실보다 더 깊이 진리를 드러냅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문학이란 "삶에 대한 감각, 가치에 대한 감각,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 그리고 삶의 관계와 연관성에 대한 감각"을 길러준다고 말합니다.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독서는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심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포는 단순한 멈춤에 그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리처드 벅스터가 말했듯, "위대한 책들은 세상에 베풀어진 아주 큰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책을 집어 들고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읽는 일일 것입니다.



▲ 설교자의 서재 독서모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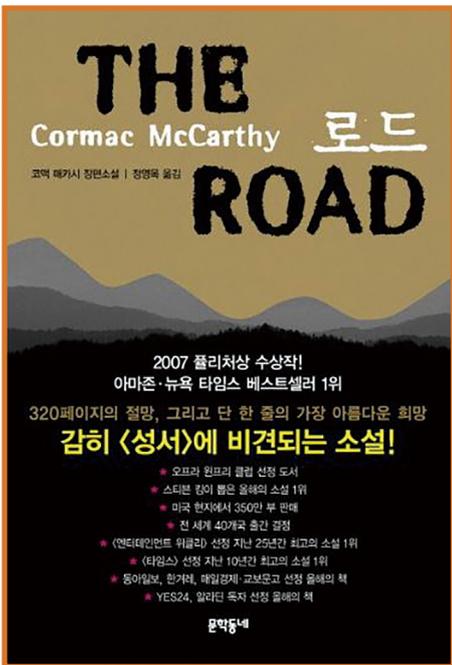
절망과 침묵, 그 안의 하나님

- 코맥 매카시의 '더 로드'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읽고 -

배현정 (KMDiv. 2020)

“책을 읽는다는 것은 더 포용력 있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는 조지 손더스의 말처럼 나 또한 지난 2년 반 동안의 독서모임을 통하여 내 마음의 상자가 조금씩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조지 손더스는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라는 저서에서, 우주의 모든 선한 능력과 악한 능력의 기원은 단 한 명의 인간에서 출발했고, 아주 보잘것없는 한 인간과 그의 정신 안에 놓인 갈림길들만 관찰해도 선과 악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한강 작가는 에세이집 『빛과 실』에서,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두 질문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자신의 글쓰기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책을 소개하고 싶다.



우선 2006년 출간된 코맥 매카시의 『THE ROAD(길)』은 거의 모든 생명이 사라진 대재앙 이후의 잿빛 세상에서,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방랑자들(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름 모를 재난 때문에 대부분의 땅은 불타서 회색 재로 덮여 있다. 음식과 물을 구하기가 어렵고 피난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의, 식, 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남자와 소년으로 묘사된다. 작가는 철저히 3인칭 화자법을 사용함으로써 소설 속 이야기를 객관화된 모습으로 보여준다.

땅이 철저히 파도되어 먹을 것이 동나고, 물이 귀하고, 그리하여 식인이 만연한 세상에서 남자의 아내는 일찍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자신과 소년이 악탈자들에게 붙잡혀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어느 날 밤 몰래 가족을 빠져나가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에서 남자와 소년은 따뜻하고 바다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절망 속의 소망이다.

남자와 소년은 불타버린 고속도로를 따라 걸었고, 잿빛 숲속이나 버려진 폐가에서 잠을 잤으며, 마트에서 훔친 강통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에서 신(神)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두꺼운 침묵만이 소설의 풍경을 이룰 뿐이다. 너무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던 남자와 소년은 버려진

슈퍼마켓을 뒤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연히 자판기에 꽂힌 빨간 코카콜라 한 캔을 발견했다. 소년은 오랫동안 황폐한 세상에서 살아왔기에 코라콜라는 생전 처음 본 것이었다. 소년은 생경한 콜라 맛에 감탄했다.

남자에게 있어서 소년은 이 세상의 전부이고 마지막 소망이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소년을 보호하고 그를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한번은 소년이 잠자는 동안 남자가 소년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워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는 것들은 고통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남자는 잠든 소년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나한테는 네가 있는 거야”

얼마 후 남자와 소년은 50m쯤 떨어진 곳에서 나쁜 사람들이 길 위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쁜 사람들의 군대가 쿵쿵거리면서 걷고 있었고

고삐에 묶인 채 수레를 끄는 노예들이 뒤를 따랐다. 군대의 수레에는 전쟁 물자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그 뒤로 십여 명쯤 되는 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몇 명은 아기도 가졌다. 맨 뒤에는 노리개 노릇을 하는 어린 소년들이 형편없이 낡은 옷차림으로 개목걸이를 한 채 걸어가고 있었다.

당시의 나쁜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하창고에 가두고 그들을 죽여서 굶주림을 해소하였는데, 남자와 소년도 하나터면 그들에게 잡혀서 먹이가 될 뻔한 적이 있었다. 이후 남자와 소년은 자신들이 아무리 굶더라도 그들처럼 되지는 말자고 다짐했다.

“우린 아무도 안 잡아먹을 거죠, 그죠?” “그래 당연히 안 잡아먹지.”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

어두운 잿빛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는 항상 남자의 뇌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남자는 두려운 나머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은 밤이 거의 없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리고 소년이 남자를 향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용감한 일이 무엇인지 묻자, 남자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드디어 남자와 소년은 그들이 품었던 한낱 작은 소망에 힘입어 따뜻한 기후와 해변에 도착했다. 그러나 애꿎게도 남자는 오랜 방랑 생활에서 얻은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 곧 멈출 것을 직감했다. 남자는 소년을 향해 자신이 죽으면 멈추지 말고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남자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소년이 주변의 좋은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면서, 소설은 막을 내린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성과 존엄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이다. 남자에게 소년이 없었다면 그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채 식인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소년의 존재이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존재에 있음을 알게 된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내가 누구를,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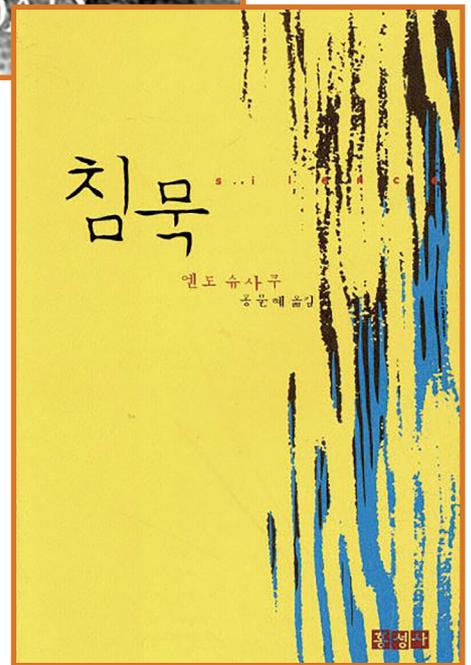
로드(길) 위의 세상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피하여 최소화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초월자이자 창조자이신 신과 마주하게 된다. 신이 없는 세상은 파괴되고 약탈되고 인간성과 소망을 잃는다. 소설 속에서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가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한 올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펴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느끼게 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 영화 "더 로드"

▼ 엔도 슈사쿠의 침묵



이어서 병오년 새해에 소개할 책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다.

1956년 출간한 이 책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묻는 주제를 담고 있다. 17세기 일본 막부시대의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탄압을 소재로 믿음과 배신, 구원과 고통,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당시 침묵을 출간했을 때 독자들은 결국 '신은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오해했고, 이에 작가는 1992년 '침묵의 소리'를 출간하여 창작 동기와 배경을 소개하였다.

이 소설의 배경은 17세기 일본이다.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는 가톨릭 박해 정책을 고수하여,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고문하여 처단하였다. 고문법 중 그들이 선호한 것은 그리스도나 마리아의 모습이 새겨진 나무 또는 금속판인 '후미에'를 밟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판별하는 것이었다.

이 기간에 5~6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으나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후미에'란 '밝는 그림'이라는 뜻으로서, 후미에를 밝으면 가톨릭 신앙을 저버린 것으로 이해되어 감옥에서 풀려났다. 작가는 훗날 후미에에 남겨진 발가락 자국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으며 그것이 소설을 쓰도록 만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소설은 주로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실존 인물인 주세페 키아라를 모델로 하였으며, 주세페 키아라는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선교사 중 한 명이었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인 박해, 고문, 처형과 주세페 키아라 신부와 페레이라 신부의 몰락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과정에서의 자세한 내용들은 작가의 상상으로 채워진 것이다.

'침묵'은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와 동료들이 페레이라 신부의 존재와 배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 잠복을 준비하는 편지에서 시작된다. 마카오에 도착한 일행은 말항을 도울 일본인으로서 매우 교활한 눈빛을 한 기치지로를 만나게 된다. 사실 8년 전 기치지로의 누나와 형은 원한을 가진 자에게 밀고 당해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린 후미에를 밝도록 명령받았으나 거절함으로써 순교하였고, 이와 달리 기치지로는 관리의 협박에 굴복하여 배교한 바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나가사키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도모기어촌에 도착하였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신부나 수도사 없이도 박해 속에서 비밀조직을 만들어 신앙을 지키는 신도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로드리고 신부 일행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 섬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세례를 주고 미사를 드리러 갔다. 이로써 방향을 잃고 폭풍우에 휩싸여 바다 위에 버려진 배와 같은 일본 신도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고발로 일본 관리들의 횡포가 시작되었고, 도모기마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나무판을 밝으라는 후미에 심문을 받게 되었다. 또한 마리아가 그려진 성화에 침을 뱉고 성모는 남자들에게 몸을 맡겨 온 매음녀라고 말해 보라는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협박에 굴복하지 않은 신도들은 바닷가 나무 기둥에 묶여서 목까지 바다에 잠긴 채 죽어갔고, 순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는 그들의 시체를 모조리 불태웠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심문과 고통을 받게 하는지에 대해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 신부님, 저희들은 나쁜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박해가 시작되고 20여 년간 일본 신도들의 신음이 가득차고, 사제의 붉은 피가 흐르고, 교회의 탑이 붕괴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너무나도 참혹한 희생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었다.

이제 로드리고 신부는 도모기 마을의 박해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재앙을 가져오는 이국인들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기 시작했음을 차츰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제일 무서운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다면 나무 기둥에 묶여 파도에 씻겨나간 신도들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일일지를 상상하곤 하였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심약한 기치지로는 은전 몇 닢을 받고 로드리고 신부를 고발했고, 로드리고 신부는 체포되어 이송되면서 이웃 마을이 불타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추방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신부는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하며 연약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당신은 어째서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저희가 당신을 위해 만든 마을조차 불타버리도록 당신은 방관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사람들이 추방당할 때도 당신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고 이 어둠처럼 다만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는 당신이 시련을 주기 위해 악창에 걸리게 했던 용처럼 강한 인간이 못됩니다. 그 이상의 고통을 이제 더는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로드리고 신부는 나가사키의 소도마치 근처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당시 나가사키에는 구멍 매달기 고문이 성행했다. 구멍 매달기 고문은 신도의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적으로 둘러싸고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리게 한다. 귀 뒤에 구멍을 뚫어서 귀와 코와 입에서 한방울씩 피가 흐르도록 하여 죽음의 고통을 주는 고문이다. 어느 칠월 같은 밤에 로드리고 신부는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바로 그 소리는 구멍 매달기 고문으로 인하여 신도들이 내는 신음 소리였다.

그날 밤 일본 관리는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하면 구멍 매달기로 인하여 고통받는 신도들을 풀어주겠다고 회유하기 시작했다. 로드리고 신부는 주님이라면 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상상하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한참 동안 울부짖다가, 사랑이신 주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배교를 허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로드리고 신부는 고문에 대한 두려움과 구멍에 매달린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의 눈은 피눈물로 뒤범벅되었고 그의 어깨는 들썩이고 있었다.

로드리고 신부는 발을 들어서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밝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밝아도 좋다."라고 후미에 동판에 새겨진 그분이 말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로드리고 신부가 후미에 성화에 발을 올려 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그리고 멀리서 닭이 울었다. 그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것이었다.

이후 그는 관헌의 허가없이 자유로운 외출이 금지되었고,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당나라 사람들의 물건 중에 가톨릭교의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일을 부여 받았다. 그는 페레이라 신부에 대해 증오와 모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눈앞에 앉아 있는 페레이라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옷을 입고 일본말을 사용하고 교회에서 추방된 인간이 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는 나가사키에서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자 베드로로, 자신은 배교자 바오로로 불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일본인 이름을 하사받았고, 죽은 일본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치욕도 받았다.

로드리고 신부는 주님과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 이라고 하셨다. 이 책은 가톨릭 신도들에 대한 박해와 격량의 시간 속에서 배교의 길을 걸었던 신부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인간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잠잠히 그리고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 영화 "시일런스"

아크크루(Ark Crew): 모든 민족을 담는 구원의 방주

김종수 (KMDiv. 2022)



▲ 아크크루 모임 사진

서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선교 운동의 시작

한국 교회의 20대 선교사가 100명도 채 남지 않은 시대에,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 동원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다는 깊은 위기감이 교회 안팎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흥을 위한 대안을 예비해 오셨습니다.

아크크루(Ark Crew)는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 선교로 동원하기 위해 세워진 청년 선교 운동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역동적이며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작은 기도 모임은 지난 2년여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수많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문서는 아크크루의 설립 배경과 비전, 핵심 사역과 성장 과정을 정리하여, 잠재적 파트너와 후원자들에게 저희의 정체성과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어떻게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가장 시의적절한 선교적 해답으로 부상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며 아크크루가 품은 비전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크크루 모임 사진2

1. 설립 배경: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된 운동

아크크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신앙 여정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설립자의 소명과 지난 15년간의 헌신은 이 단체의 DNA를 형성했으며, 모든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예기치 않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크크루의 시작이 사람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아크크루는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로 탄생한 조직이 아니라, 순종의 여정 속에서 빛어져 온 운동입니다.

1.1. 부르심의 시작: '집회니아'에서 선교 헌신자로

설립자는 30년 이상 목회해 오신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PK)였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사역자의 삶에 대해 강한 거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무 살 이후 수많은 예배와 집회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았고, '집회니아(집회+엔지니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뜨겁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2살,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참여했던 한 선교 훈련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접한 순간, 그는 깊은 충격과 함께 영적인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영적 자원과 기회가 넘치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온 자신의 삶은, 복음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현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만남은 삶의 목표를 세상의 성공에서 열방을 향한 헌신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되었고, 훗날 아크크루가 품게 될 가장 근본적인 사명, 곧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 비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2. 15년의 준비: 선교 동원 사역을 통한 훈련

선교에 헌신한 이후, 설립자는 이전 선교단체에서 약 15년간 '선교 동원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캠퍼스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 선교 비전을

나누고, 팀을 구성해 단기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사역을 반복하며 다음 세대를 선교로 이끄는 사역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경험의 축적을 넘어, 청년들의 질문과 두려움, 가능성과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지역의 티벳 난민촌과 북아프리카 튀니지를 각각 8차례 이상 방문하며 특정 민족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훈련시키며, 귀국 이후의 삶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튀니지 장기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 15년은 아크크루 사역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탄탄히 떠받치는 준비기가 되었습니다. 계획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한 세대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조용히 다져가고 계셨습니다.

1.3. 예기치 못한 시작: 튀르키예 단기선교와 아크크루의 탄생

15년간의 사역을 정리하고 튀니지 장기 선교 파송을 앞두고 항공권 발권만을 남겨두었던 시점, 설립자는 개인적·직업적으로 깊은 불확실성의 시간을 맞이하며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인 2023년 2월,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중보기도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던 중, 자연스럽게 구호 활동을 위한 단기선교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팀의 이름이 필요했지만, 이 사역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 여겼기에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제안한 이름이 바로 '아크크루(Ark Crew)'였습니다. '방주의 선원'이라는 이름은 깊은 의미 부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후, 함께했던 청년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일회성 팀이었던 아크크루는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공동체로 성장했고, 이후 공식적인 선교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담는 구원의 방주'라는 의미는 단체가 성장한 이후에 부여된 해석입니다. 이는 아크크루가 치밀하게 기획된 조직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순종의 발걸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운동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 비전과 정체성: 왜 아크크루인가

아크크루는 명확한 핵심 철학과 선명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 운동은 규모나 속도보다 방향을, 효율보다 충실함을 선택해 왔으며, 바로 그 선택이 아크크루를 아크크루답게 만듭니다.

2.1. 핵심 사명: 미전도 종족을 향한 헌신

"저희는 미전도 종족 선교합니다. 저희는 이 분야로 많이 걸려져요."

아크크루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Groups) 선교'에 대한 타협 없는 헌신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선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제안부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신학적 정체성을 완화하라는 압력까지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크크루는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향한 첫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어 왔습니다.

이 선명한 정체성은 단체의 방향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었고, 동일한 비전을 품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는 강력한 필터로 기능해 왔습니다.

2.2. 두 가지 핵심 비전

아크크루는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대전제 아래, 다음의 두 가지 구체적 인 비전을 추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인이 되게 하라"

아크크루는 소수의 전임 선교사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선교인(Missionary Person)'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웃으로 맞아 복음을 전하는 등, 일상 속에서 선교적 감수성을 실천하도록 도전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선교의 동력을 회복하게 하라"

아크크루는 한국 교회의 선교적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촉매제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교회의 청년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DNA를 심어 다시 지역 교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와 목회자와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건강한 협력 관계 속에서 한국 교회와 함께 열방을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2.3. 차별성: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

아크크루는 현시대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가족을 품는 강력한 공동체성: 매주 예배 후 11~12시 까지 이어지는 '크루 모임'은 깊은 나눔과 기도를 통해 강력한 소속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대학 졸업 후 공동체를 잃어버린 20~30대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체계적인 '키즈팀' 운영은 이 깊은 공동체를 젊은 부모들에게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설립자의 남편이 직접 5~8시간씩 아이들을 돌보며 시작된 이 헌신은, 결혼과 육아로 선교의 비전을 접었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MZ세대에 대한 탁월한 접근성: 젊은 리더십과 SNS를 적극 활용하는 미디어 전략은 MZ세대와의 소통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선교 동원은 전체 동원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세대를 선교의 장으로 이끄는 핵심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비전과 독특한 접근 방식은 구체적인 사역 활동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3. 핵심 사역: 비전을 실현하는 구체적 활동

아크크루의 비전은 체계적인 훈련, 역동적인 단기선교, 그리고 강력한 동원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됩니다. 각 사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단체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3.1. 훈련 시스템: 제자에서 선교사로

아크크루의 핵심에는 사람을 세우는 전략적인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AD 훈련 (Arkcrew Discipleship): 10주 과정의 이 훈련은 의도된 순서로 설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 분별법'과 '용서'를 다루며 참가자들의 개인적 필요를 채우고 마음을 엽니다. 신뢰가 쌓이면 '제자도'를 통해 헌신의 기초를 다지고, 영적으로 준비된 5주차부터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효과적인 제자도 갈때 기는 **1기 7명**에서 **2년 만에 5기 106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심화 훈련: AD 훈련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리더를 양성하는 2개월 합숙 과정입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인격과 충성을 단련하며 단체의 핵심 리더십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3.2. 단기 선교: 현장에서 열방을 품다

아크크루 단기선교의 방식은 독특하고 효과적입니다. 관광객처럼 보이는 청년들은 튀르키예, 네팔,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현지인들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집에 방문하고, 함께 불링을 치고, 식사하며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 안전한 공간 속에서 현지인들은 자신의 사회에서는 결코 말할 수 없었던 종교에 대한 환멸이나 깊은 고민을 털어놓고, 이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통로가 됩니다. 사역의 확장에 따라 파송팀은 초기의 **1개**에서 **4개로** 늘어났습니다.

3.3. 캠프와 정기 예배: 선교 운동의 동력

캠프와 정기 예배는 선교 비전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선교 캠프는 첫 회 70명에서 최근 300명으로 참가 인원이 급증하며 다음 세대의 선교적 열망을 증명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의 '개더링 예배'는 단순한 예배를 넘어, 예배 후 이어지는 '크루 모임'을 통해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3.4. 미디어 사역: 온라인을 통한 선교 동원

아크크루의 급격한 성장은 치밀한 미디어 전략에 힘입은 바가 큼니다. **월간 인스타그램 노출 수 600만 회, 팔로워 3만 2천 명**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전략적 실행의 결과입니다. 설립자의 남편이 '게시물 공장'처럼 하루에 3개에 가까운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며 알고리즘 노출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고강도, 고빈도 전략을 통해 선교에 무관심했던 수많은 청년이 아크크루를 접하게 되었고, SNS는 새로운 세대를 선교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4. 성장과 미래 과제: 지속 가능한 운동을 위하여

아크크루는 지난 2년여의 짧은 시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전략이나 역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해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감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아크크루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선교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의 열매와 더불어 당면한 과제와 미래의 비전을 투명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4.1. 2년간의 폭발적 성장

아크크루의 성장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됩니다.

훈련생 규모: 1기 7명 → 5기 106명

선교 캠프 참가자: 첫 캠프 70명 → 최근 캠프 300명

단기선교팀 파송: 1개 팀 → 4개 팀 (향후 6개 팀 이상 확대 목표)

SNS 팔로워(인스타그램): 0명 → 32,000명 이상

이러한 양적 성장은 다음 세대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 선교적 갈망과,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명한 메시지가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더 정교한 돌봄과 훈련, 그리고 책임 있는 구조를 요구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크크루는 성장의 속도보다 방향과 깊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2. 당면 과제: 리더십 개발과 파송 시스템 구축

급격한 성장 속에서 아크크루는 두 가지 핵심 과제 앞에서 있습니다.

리더십 개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시간의 검증'을 거친 제자를 세우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크크루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공동체 생활 속에 의도된 불편함을 심어 리더를 세웁니다. 제한된 화상실을 함께 사용하고, 포장되지 않은 날것의 모습이 드러나는 일상의 crucible(도가니) 속에서 인격과 충성, 관계 맺는 방식이 검증됩니다. 우리는 빠른 리더 양성이 아닌, 오래 견딜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시스템 구축

아크크루는 단순한 '동원 단체'를 넘어, 장기 선교사를 책임 있게 세워 파송하는 '파송 단체'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환을 위해 여러 선교단체와 전략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인 경로를 기도 가운데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장기 헌신자들은 최 1년간 재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페이스 미션(Faith Mission)' 과정을 통해 영적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이는 사역 이전에 삶 전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아크크루 모임 사진3

4.3. 미래 비전: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운동

아크크루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체의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한국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가운데 선교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체적인 교회 개척을 지양하며, 선교단체가 교회와 경쟁하는 구도를 철저히 경계합니다. 아크크루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각자의 지역 교회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 자리에서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장 건강한 열매입니다. 아크크루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열방으로 보내시기 위해 친히 준비하신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여정에, 더 많은 교회와 파트너, 그리고 동역자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Information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TTCSP, Torch Trinity Center for Spiritual Formation and Practical Theology)는 **영성과 예배설교** 등 두 분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예배설교분과에서 1년에 한 차례 발행하는 매거진입니다.

- 예배설교분과에서는 설교클리닉, 예배클리닉, 사역클리닉, 독서모임, 교회건축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사역을 돕고자 합니다.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활동 내용과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문의는 안덕원 교수(dw.ahn@ttgu.ac.kr) 혹은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02-570-7565, ttcsp@ttgu.ac.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TTGU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와 교회만들기 동아리, TTGU동문회가 함께 2026년 [설교자의 서재-신학과 문학] 독서모임을 진행합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서재 오픈채팅방을 참고하세요.
<https://open.kakao.com/o/g4ZQEXff> (하단 QR 참고)
-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학교 홈페이지 왼편에 위치한 기부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용도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실천센터"로 기부해주시면 됩니다.
계좌: 우리은행 1005-784-789012, 하나은행 281-890023-44704.
- 예배설교분과의 활동과 매거진의 발행을 위해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김월섭 동문(MTS, 2017), 축복이넘치는교회 (김태호 목사 및 성도님들), 제자들교회(김경한 목사), 초양교회(강환식 목사), 동신교회(강충선 목사), 정음명성교회(권형준 목사).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교자의 서재 오픈
채팅방 QR코드





횡블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모두를 위한 **예배와 설교**

발행인 오덕교
편집인 안덕원 | 정희애 | 차두진 | 서애지 | 권예찬
디자인 권예은(밍고더디자인)
펴낸곳 횡블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02-570-7372(대표) | 02-570-7565(센터) | ttcsp@ttgu.ac.kr(센터)

ISSN 2982-5377
발행일 2026년 2월 28일
통권 5호



www.ttgu.ac.kr